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11. 24.(화), 14:00 ~ 16: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위원 : 신안준(위원장), 강동진, 권기혁,
김연희, 김이순, 김종헌, 목수현,
안창모, 오용섭, 윤균, 이광표,
추미경(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제176호「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보수(현상변경)	(공 개)
2	「한글점자『훈맹정음』제작 및 보급 유물」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3	「한글점자『훈맹정음』점자표 및 해설 원고」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4	「구 천도교 임실교당」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5	「구 충주역 급수탑」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6	「대한간호 창간호, 속간 1호」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7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상변경 신청사항 및 추진 계획 보고	(공 개)
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안건번호 근대 2020-10-01

1. 국가등록문화재 제176호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보수(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제176호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보수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보수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2) 대상문화재명 :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 제176호, '05.6.18.)

○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교촌리 246번지)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교촌리 246번지)

○ 신청내용 :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보수

<원형 고증 및 노후에 따른 보수>

구분	보수 내용
지붕	· 마감재 교체(샌드위치 패널→천연 슬레이트 마름모 잇기/397㎡) · 개판 위 목재 틀 및 합판 설치(T=50 압출법 보온판 및 방수 포함/397㎡) · 처마홈통(46m) 및 선홈통(8개소) 교체(스테인리스 스틸→동판)
외부 벽체	· 벽돌 교체 2,602매(전체 외벽면의 약 7.2%교체) · 치장줄눈 보수 30㎡, 표면세척 361㎡ · 외부 기단 보수(인조석 탈락 부분 보수)
수장 및 미장 (내부)	· 천정 : 텍스 철거 후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265㎡) · 내벽 : 수성페인트(노후에 따른 재 도장)(250㎡) · 바닥 : 비닐계 타일 → 마루틀 설치 및 장마루 설치(254㎡)
창호	· 외부 알루미늄 창호 15개소 → 철재창호(들어열개 13개소, 미서기 2개소) 15개소 교체 설치 · 강화유리도어 출입문 4개소 → 목재 출입문 4개소 교체 설치

라. 참고사항

(1)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자문의견(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실시)

○ 문화재전문위원 ○○○('20.08.26.)

-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76호로 지정된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의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원형고증이 가능한 부분은 원형을 복원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임.
- 등록문화재의 원형에서 가장 변형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지붕 마감재 및 창호, 내부 바닥 마감재 부분임.
- 지붕마감재는 2011년 수리과정에서 조립식 패널로 변경됨, 1941년 졸업앨범에서 당시 본관과 강당 모두 마름모꼴 형태로 지붕이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천연슬레이트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창호는 현재 알루미늄 창호로 변형되어 있음. 1951년 및 1971년 졸업앨범에 수록된 사진을 통해 현재 지붕 박공면에 있는 창호와 유사한 규격의 작은 창으로 세분된 형식이며 가운데의 고정창을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에 들어열개 창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됨.
- 강당 내부 바닥의 경우 현재 PVC계 타일로 마감되어 있음. 과거 강당 바닥은 마루바닥 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상과 같은 고증 결과를 바탕으로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의 지붕 재료 및 창호, 바닥 마감 재료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복원 이외에 현재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외장 벽돌 부분과 내부에서 확인되는 누수임.
- 수리가 필요한 벽돌의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제작하기보다는 규격과 물성이 유사한 벽돌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처마홈통 및 선홈통에서 누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누수 부위의 마감재를 교체하고 처마홈통 및 선홈통을 수리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20-10-02

2.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송암 박두성기념관 소장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9.22.)를 거쳐 등록 예고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8건 48점	13.2×18.7cm 등	1946년 등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송암박두성기념관

*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은 등록 예고한 명칭이며, 등록 신청 명칭은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점자 유품」임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7.30.) : 문화재 등록 신청(인천광역시→문화재청)

○ ('20.8.28.)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0.9.22.)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 가결**' (인장류 제외)

(4) 등록예고 : '20.10.15.~11.13. (30일간) *의견 없음

라. 세부목록

문화재명	수량	규 격 (세로×가로×높이)	제작년대
한글점자	1건 1점	13.2×18.7cm	1946년
일지	1건 1점	25×19 cm	1926~1954년
맹사일지	1건 1점	30×22 cm	1926년
점자원판-우어	1건 41점	26.5×18cm	1930년대 초 추정
제판기	1건 1점	20×78×90cm	1910~1930년대
점자인쇄기-로울러	1건 1점	50×50×47cm	1910~1930년대
점자타자기	1건 1점	10.5×35×9cm	20세기
촉불	1건 1점	26.7×18.1cm	1949년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8.28.)

- 해당 유물은 송암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과 관련된 유물임. ① '한글점자'는 훈맹정음의 창안과 각종 사용법을 기록한 육필 원고로 가치가 있음. ② '일지'와 ③ '맹사일지'는 훈맹정음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보급하는 과정에 관한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치가 있음. ④ '점자원판-우어', ⑤ '제판기', ⑥ '점자인쇄기-로울러', ⑦ '점자 타자기'는 박두성이 점자 문서와 책자를 만드는 데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점자로 책자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이며, 한글 점자를 보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높음. ⑧ '촉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회람지로 현존하는 유일본이므로 가치가 높음.

○ ○○○○○○ ○○○('20.8.28.)

- 박두성기념관에 소장된 유물은 점자의 제작과정, 제작 도구, 제작된 점자책들, 제작 이후 보급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임. ① 한글점자는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작성한 간이책자로,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점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급하는 과정을 알려주므로 가치가 있음. ② '일지'는 박두성의 한글점자 제작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가치가 있음. ③ '맹사일지'는 점자를 제작한 이후 점자의 보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치가 있음.

- ④ ‘점자원판-우어’는 이솝우화를 점역하기 위해 만든 아연판으로, 점자도서를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⑤ 제판기, ⑥ 점자인쇄기-로울러, ⑦ 점자타자기 는 점자도서를 만드는 도구로 점자보급과 관련된 것으로 가치가 있음. ⑧ 촛불(촉불)은 시각장애인들이 회람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치가 있음.

ㅇ ○○○○○○ ○○○('20.8.28.)

- 해당 유물은 송암 박두성이 개발한 ‘훈맹정음(訓盲正音)’과 관련된 유물임. ①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지은 한글점자 설명서로, ‘훈맹정음’을 만든 목적,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가치가 있음. ② 일지와 ③ 맹사일지는 훈맹정음을 창안하는 과정과 그것을 보급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④ ‘점자원판-우어(우화)’은 이솝우화를 제판기를 이용해 점자 원판에 찍어낸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점자판으로 만들어 보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임. ⑤ ‘제판기’와 ⑥ ‘점자인쇄기-로울러’와 ⑦ ‘점자타자기’는 한글 점자책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기계들로 된 유물로 가치가 있음. ⑧ ‘촉불’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소식지로, 한글 점자책을 이용하여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활용한 실재체(實在體)의 유물로 가치가 있음.

ㅇ ○○○○○○ ○○○('20.8.28.)

-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여 1926년 11월 4일에 반포한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 문자 창제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점자 및 점자자료 제작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가치가 있으며. 훈맹정음과 관련된 해당 유물들은 훈맹정음의 창안과 보급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높음.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송암박두성기념관

3. 소 유 자 :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4. 조사자 의견('20.8.28.)

<문화재위원 ○○○>

1) 개요

ㅇ 훈맹정음은 1926년 송암 박두성이 만든 한글점자의 명칭임.

ㅇ 박두성(朴斗星, 1888-1963, 호 송암(松庵))은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點字)를 창안한 교육자임.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 교사로 있다가 1913년 제생원 맹아부(서울 맹학교의 전신) 교사로 취임함. 일어 점자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학생들과 함께 조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하여 1926년 한글 점자를 완성하고 그 명칭을 ‘훈맹정음(訓盲正音)’으로 함.

ㅇ 1933년 제생원 맹아부를 퇴직하고 인천 영화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자택에서 조선맹인사업협회 이름으로 우편을 이용한 통신교육을 통해 전국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을 보급하고 한글 점자로 맹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 박두성은 기독교인으로서 대영성서공회의 지원으로 1931년부터 성경을 점역하기 시작하여 1948년까지 신약전서 전권을 점역 출판하였으며, 성경뿐 아니라 『속담집』, 침구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모은『금싸라기』『은싸라기』와, 『천자문』『명심보감』『편지틀』『천수경』『불쌍한 동무』등 점역서를 계속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익히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진력함. 해방 후 1947년부터는 점자 회람지 『촉불』을 제작하여 돌려보게 함으로써 맹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맹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함. 이후 1963년 타계할 때까지 한글 점자로 맹인들의 교육에 힘써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림.

ㅇ 1962년 국민포상을 받았으며, 타계한 뒤인 1992년 정부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고, 2002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기리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됨.

ㅇ 한글 점자는 훈맹정음보다 평양에서 선교를 하던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Hall, 1865-1951)이 뉴욕식 4점 점자를 이용하여 만들어 맹인 여성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었음. 그러나 영어 알파벳을 응용한 이 4점식 점자는 한글의 종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박두성과 조선어점자연구회원들은 한글의 특성을 살려, 당시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던 브레유(Braille) 식 점자를 토대로 만든 일본 6점 점자를 응용해 6점으로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자를 만들고 이를 “훈맹정음”이라고 명명함.

○ 박두성기념관에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의 유족이 기증한 물품임. 송암 박두성 기념관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에 인천의 인물인 송암 박두성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마련한 공간임. 박두성 선생인 훈맹정음을 만들고 점역하던 여러 기구 및 점자책, 개인 유품 등을 소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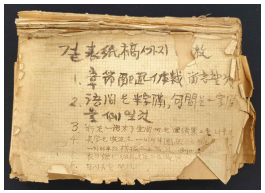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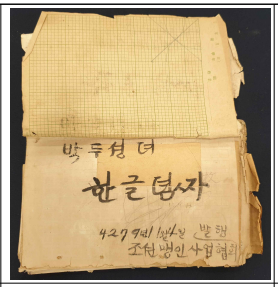
○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기록한 『한글 점자』 육필 원고임. “4279년 11월 14일 조선맹인사업협회 발행”이라고 쓰여 있어 1946년 조선맹인사업협회 이름으로 발행을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종이에 필사로 쓰여 있으며 크기는 13.2x18.7cm 임.

○ 한글 점자를 창안한 이후 각종 사용법을 정리한 자료로,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점자, 한글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부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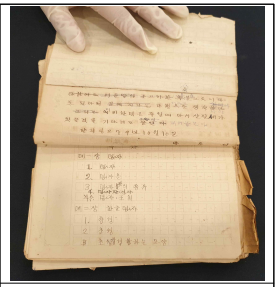
○ 한글 점자의 원리와 구성을 문자화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알 수 있도록 서술한 것으로 보임. 1940년대의 한글 점자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어 한글점자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실로 묶여 있으며, 종이가 낡아 보존이 필요함.



한글 점자 일러두기



한글 점자 표지



목차 부분

나. 일지(日誌)

○ 박두성 선생이 1926년 8월 12일부터 1954년까지 시각장애 관련 업무를 기록한 일지임. 표지에 필사로 “日誌”라고 적혀 있으며, 내지 두 번째 장에 “육화지(六花誌)”라는 별칭도 사용함. 전체 177쪽 정도이나, 서류용 종이 등 여러 가지 종이가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오른쪽으로 묶어 철함. 전체 크기는 25x19cm임.

○ 일제강점기에는 대정, 소화 연도를, 해방 이후에는 단기 연도로 기록함.

○ 육화사 설립부터, 훈맹정음을 만들 때 배점을 정한 것에 관한 기록, 육화사에서 보낸 편지 4종, 초년도 예산, 한글점자 서식 등 한글 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과정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보낸 편지의 사본, 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 스크랩 등도 붙어 있음.

○ 대부분 일본어 필사체 및 국한문 혼용 필사체로 쓰여 있어 판독이 필요함.

일지 표지

일지 내용과 ‘육화’ 인장

해방 후 단기로 기록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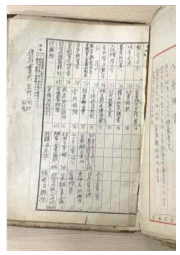
다. 맹사일지

○ 훈맹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운영한 내용을 기록한 것임. 표지는 장지에 “맹사일지”라는 표제어를 다른 종이에 따로 써서 붙였는데, 이것은 후대에 붙인 것으로 보임. 내지는 서류 용지 및 갱지와 이면지 등을 사용했으며 일지의 크기는 30x22cm 이나 메모, 신문 스크랩, 명함, 영수증 등 덧붙인 종이가 다수 있음.

○ 조선맹인사업협회의 입회원서 및 회원 입회 현황, 점자 통신 교육 관련 자료, 한글 점자 연습, 책 빌리는 규정, 책을 부치는 방법, 훈맹정음 표, 맹서기(점자판)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성서간행표와 성서복사표, 점자 도서 제작 현황, 점자 원판 목록, 지역별 시각장애인 명단, 업무용 각종 편지 및 명함 등을 정리한 일지임.

○ 박두성 선생이 직접 필사로 기록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일로서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 사업을 조선맹인사업협회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임. 또한 박두성 선생과 맹인들이 함께 점자를 만들기 위해 논의한 과정이 상세히 들어 있어 추후 자세한 연구와 해제가 필요함.

맹사일지 표지



장부 기록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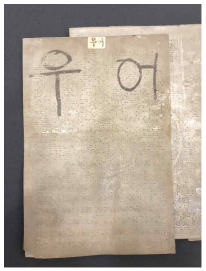
붙인 메모들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얇은 아연판에 점자를 찍은 원판으로 모두 41장이 있으며 1930년대 초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크기는 26.5x18cm임. 원판에는 육화사 인장도 찍혀 있음.

○ 점자서를 대량으로 인쇄할 때 사용하는 원판임. 점자서 출판은 얇은 아연판을 반으로 접은 뒤 점자제판기에 부착하여 점자를 입력하고, 완성된 원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점자 인쇄기(로울러)로 밀면 종이에 점자가 눌려 인쇄되는 방식임.

○ “우어” 점자의 내용은 이솝우화 이야기가 들어 있음. 점자 찍는 방식에서 문단 구별 없는 초기 점자 표기 양식이며, 연속표, 장음표, 군숏, 재서표, 된소리표, 소거듭 사용 등 점자 변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우어 아연판

우어 아연판

우어 아연판들

마. 제판기

○ 아연판에 점을 찍어 점자 원판을 제작하는 기계로, 박두성 선생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판기임. 점자 인쇄 시 1부씩만 제작이 가능한 점자판, 점자 타자기와 달리 아연판을 이용하여 점자 원판을 만들어 동일한 책을 여러 권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음. 철제로 제작되어 있으며 1910-1930년대 제작으로 추정함.

○ 박두성이 제판기를 사용하는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이 제판기를 사용하여 여러 점자 책을 만들어 내었음. 박두성의 차녀 박정희의 구술 기록에 따르면 박두성은 퇴임 이후에도 점역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밤마다 제판기를 사용했다고 함. 밤에 헤드라이트를 끼고 작업하느라 시력이 매우 나빠졌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함.

제판기

박두성 선생이 제판기를 사용하는 모습

바. 점자인쇄기-로울러

○ 제판기로 만든 점자 원판(아연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로울러를 밀어 점자가 찍히게 하는 점자 인쇄기임. 1910-1930년대 제품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50x50x47cm 임.

○ 박두성 선생이 점자 책을 제작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이 로울러에 아연판과 종이를 넣어 점자 책을 만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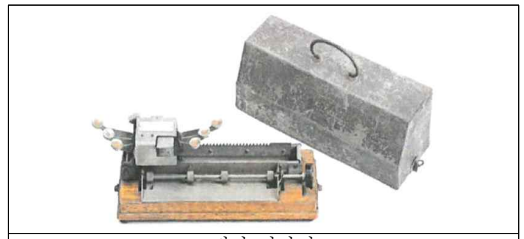
로울러 옆에서 본 모습

로울러 위에서 본 모습

사. 점자타자기

○ 박두성 선생이 직접 사용한 점자 타자기임. 나무와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10.5x35x9 cm 크기의 타자기와 10.7x34x9.5 cm 크기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음.

○ 6개의 글쇠를 조작하여 6개의 점을 찍을 수 있음. 타자기 제작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6개의 점을 이용하여 고안한 한글 점자를 찍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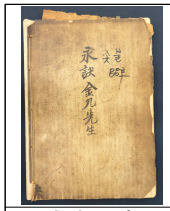
점자 타자기

아. 촉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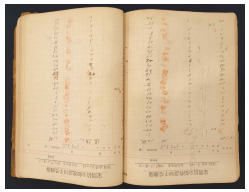
○ 표지에 “촛불(촉불) 88호”, “영결 김구 선생”이라고 한글과 수자, 한자로 적혀 있으며, 내용은 한글 점자로 이루어져 있음. 은행에서 사용하다 폐기한 정기적금영수증수불부 종이를 활용해서 제작했으며, 크기는 26.7x18.1 cm 임. 표지에 한글로 ‘촛불’이라고 쓰여 있으나 이는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며, 내지의 첫 장 첫 머리에 점자로 “촉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음(박두성 기념관 측 확인). 한자어 ‘촉(燭)’은 15세기 국어에서 뜻은 “쵸”, 음은 ‘쵹’이었기 때문에 ‘촛블’로 나타났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촛불’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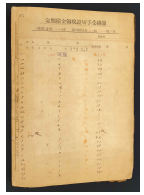
○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로 된 책자는 인쇄해서 보급했으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신문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는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15명이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소식을 정리한 점자 회람지 『촉불』을 제작함. 박두성 선생이 당일 신문기사에 대한 논평과 해설을 하고 제자 이상진이 점자로 받아 적고 간단하게 제본해서 순서대로 돌려 읽었으며 다시 박두성 선생에게 돌아오도록 함. ‘촛불’인지 ‘촉불’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촉불”은 “觸拂”의 한글 표기라고 추정되며, 손으로 닿아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촉불』 88호의 내용은 7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백범 김구 선생의 영결 소식 및 이범석 국무총리의 조사를 24쪽에 걸쳐 소개한 것임. 『촉불』은 1947년부터 발행하여 한국전쟁 전까지 주간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1949년 7월 11일에 발행된 88호가 유일함.



촉불 표지


내용 면


뒷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지(日誌)』와 『맹사일지』는 표지가 일부 박락되고 내용도 종이가 오래되어 만지면 바스라지는 부분도 있음. 보존처리가 시급함. 『한글 점자』와 『촉불』은 내지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표지는 다소 낡음.

○ 점자원판-우어(우화)도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점자의 요철이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관 상자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자 타자기, 제판기, 로울러, 인장 등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박두성기념관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전시하며 잘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특히 종이류는 장기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글 점자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이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유물임. 장애인의 역사에 관한 교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일지(日誌)』와 『맹사일지』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보급하는 과정에 관한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화재로 등록가치가 높음.

○ 『한글 점자』는 해방 후에 한글 점자의 창안과 사용 방식을 정리한 육필 원고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촉불』은 박두성과 제자 이상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회람지로 현존하는 유일본으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점자원판(우어)는 아연판에 새겨 점자 책을 만들었던 원판이며, 점자 타자기, 제판기, 로울러는 박두성이 점자 문서와 책자를 만드는 데에 직접 사용한 기기로, 이는 점자로 책자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이며,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여 한글 점자를 보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높음.

7) 기타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훈맹정음'은 1926년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를 이르는 고유명사이며, 한글을 이르는 '훈민정음'과도 연관을 가지며 시각장애인의 문자라는 뜻을 잘 살리고 있음. 또한 현대 한글 점자가 훈맹정음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문자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립한글박물관에 박두성 유족이 기증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은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한 공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자료와 유물의 특성을 지니며, 한글박물관 소장 유물은 점역된 문건, 개인 편지 등 개인 기록과 관련된 유물이 다수 있는 편임. 그러나 두 기관의 유물이 모두 훈맹정음 제정과 보급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함.

○ 일지와 맹사일지 등 육필본 원고는 보존 처리 및 디지털화하여 내용을 추후 상세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두성 기념관에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를 보급하기 위해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했던 점역서가 여러 권 남아 있으나 이번 등록 문화재 신청에는 들어 있지 않음. 그러나 한글 점역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이 보급되었던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한글 점자 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제판기, 로울러 등과 함께 등록 문화재가 되면 전체적인 과정이 함께 담기게 되므로 추후 등록 문화재로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함.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던 점자판도 한글을 처음에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박두성 기념관에 해당 유물이 있다면 추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함.

<○○○○○○ ○○○>

1) 개요

○ 현재 용현동 박두성기념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유족인 박정희씨가 직접 기증한 것임. 현재 박두성 유물은 이곳, 한글박물관 등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음. 이곳에는 한글 점자 제작과정, 제작 도구, 제작된 점자책들, 제작 이후 보급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음.

○ 박두성은 한성사범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제생원 교사가 된 이후, 일제의 교육과 조선인들의 생활 간의 괴리를 느껴 점자를 개발했음.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에게 맞는 문자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었지만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이를 개발하고, 조선인 맹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음.

○ 식민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우선은 선교사가 시작했고, 이후에는 일본 총독부에서 제생원을 통해 교육.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은 뉴욕포인트식에 기반에 점자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한글의 자모체계와 맞지 않아 익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함. 당시 제생원의 교사를 하고 있었던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교육을 받으며 해부학 등을 배우는데 일본어 점자를 익혀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자를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점자의 창제 과정은 박두성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맹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몇가지 안을 두고 함께 만들어간 것임. 그래서 식민지 사회에서, 조선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동창작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던 단체의 이름은 처음에는 육화사였고, 이후 조선맹인사업협회로 바뀌었음. 그래서 박두성의 점자창제는 단순히 박두성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당시 박두성의 제자들이었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협동하여 작업한 것임

○ 그래서 점자 개발 이후에도, 수많은 점자책의 제작,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실제로 점자를 익히고, 점자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음. 또한 이것은 박두성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당시 수많은 박두성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행한 사업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음. 맹인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제공하고자 했음. 그래서 박두성은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해 맹인 교육을 강조했고, 맹인 교육을 위한 기본적 도구인 점자를 개발했고, 현재 문화재로 신청하는 유물들은 그런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임. 유물들은 근현대 민족운동과 소수자 역사의 중요한 유물이라 평가함

○ 훈맹정음의 의의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있음.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는 경기지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지방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기에 지방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게하기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하거나 여러 점자 강습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점자를 학습하는 것은 우선 안마사나 판수 등의 직업활동에 기반이 되는 실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였음.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변화와 교양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책들(문학, 역사, 시사)을 점역해 보급했음. 당시 점역된 도서로는 명심보감, 금삼의 피, 내가넘은 삼팔선 등 역사, 문학, 사회 등 다양한 주제의 저서가 들어있음. 훈맹정음은 박두성의 실천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와 시각장애인들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 가능했음

○ 박두성과 맹인사업협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었음. 점자창제, 교육, 제작 및 보급/대출 등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등록 신청된 유물은 이런 점자 사업의 전반적 영역과 관련된 유물들임

점자창제	점자교육 : 통신교육	점역도서 제작	점역도서 보급 및 대출

<점자 창제와 맹인사업의 영역>

○ 참고도서

- 박두성, 「한글점자에 관하여(훈맹정음)」, 『성서한국』 제2권 제2호, 대한성서공회, 1956, 10~19쪽.
- 강현진, 「송암 박두성의 시각장애 교육활동」,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주윤정, 「식민지기 문화정책의 균열: 박두성의 訓盲點字와 盲人」. 『인천학연구』. 2008. 9(9) p. 245-270.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작성한 간이책자임. 한글점자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 소개함. 훈맹정음의 의의는 단순히 창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자를 사람들에게 교수하고, 제작하고, 보급하여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문해력, 지식 등을 확장한 것이 중요함. 이 간이책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점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음. 점자제작만이 아니라 교육·보급의 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임

(나) 일지(日誌)

○ 일지(日誌)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8월 12일 부터 1954년까지의 시각장애 관련 업무를 직접 기록한 기록물로 육화사 설립부터 훈맹정음 창제 시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음. 이것은 박두성이 점자를 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국한문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한 것임. 일지에 의하면 점자창제는 육화사라는 단체 이름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리고 이곳의 내용은 해방이후 정서가 되어 「한글점자에 관하여(훈맹정음)」라는 글로 잡지에 내용이 수록되었음. 박두성의 한글점자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다) 맹사일지

○ 맹사일지는 박두성이 점자를 제작한 이후, 1927년 조선맹인사업협회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점자를 보급하고자 했음. 본 맹사일지는 맹인사업협회의 다양한 활동 등을 기록한 자료임. 조선맹인사업협회의입회원서 및 회원 입회 현황, 점자통신교육 관련 자료, 맹서기(점자판)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훈맹정음 관련 각종 팜플렛, 점자도서 제작 현황, 점자 원판 목록, 점자찬송가 간행 계획, 지역별 시각장애인 명단, 업무용 각종 명함 및 편지들이 송암의 자필로 기록되어 있음. 당시 점자로 된 책들의 대출 내역가지도 포함되어 있어, 점자의 역사 뿐 아니라 당시의 독서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당시 사회의 다양한 사회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임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우어(이솝우화)를 점역하기 위해 만든 아연판임. 박두성이 제작한 점자 도서들은 남아있지만 아연판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점자도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점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연판에 타공을 하여 이후 제판기를 활용하여 제작을 하는 방식도 있음. 현재의 아연판은 이솝우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박두성이 직접 아연판에 점역을 한 것으로 추측됨. 점자도서의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음. 193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점자의 역사에서 점자의 변천과 제작 방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함.

(마) 제판기

○ 박두성이 점역서를 제작하는데 사용했던 제판기임. 이것은 일본맹인복지협회에서 기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박두성이 실제 사용하던 사진이 남아있음. 이 제판기를 활용해서 점역을 하고 점자를 보급했음. 박두성의 점자창제의 의의는 단순히 문자를 제작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두성과 당시 제자들은 점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는데, 점자를 수기가 아니라 비교적 반자동화된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했음. 점자는 대량인쇄가 가능하지 않기에, 제판기로 제작을 하면 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음

(바) 점자인쇄기-로울러

○ 제판기를 이용해 만들어진 아연판을 로울러에 넣고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도구였음. 이 역시 제판기와 마찬가지로 점역의 도구임. 이렇게 점역된 종이를 모아 점역도서를 제작했음. 당시에는 점역된 도서가 거의 없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었음. 하지만 박두성과 맹인사업협회의 사업을 통해 점역을 실시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서대출을 했음

(사) 점자타자기

○ 박두성이 직접 사용하던 점자 타자기임. 박두성의 유물은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다가 기념관으로 기증이 되었음. 동일 방식의 점자 타자기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박두성이 직접 6점 점자 방식으로 사용하던 타자기이기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음. 제생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박두성은 점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제작하고 보급했음. 아마도 편지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아) 촛불

○ 8.15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매체가 부족했음. 주로 구전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념갈등, 분단 등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부족했음. 특히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복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혹은 기독교인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북쪽에서는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었음. 그래서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박두성은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여러 소식들을 점역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회람했음. 당시의 사회변화를 알려주는 소식들을 시각장애인 공동체와 공유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상을 알려준 것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유물들은 비교적 원형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음. 하지만 일지와 맹사일지의 경우 육필원고로 겹겹이 여러 장을 이어 붙여 작성된 것으로 스캔 등을 통해 보존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기념관에서 유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적 보존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함. 기념관에는 여러 문서류 등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제습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문서류가 스캔이나 사진 등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문화재 보존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등록 신청하지 않은 다른 문화재 역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박두성이 직접 제작한 점자 책이 수십종이 있으며, 또한 박두성이 점자보급사업을 위해 작성했던 편지 등이 남아 있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문화재를 신청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박두성의 점자와 점자보급활동은 한국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소수자의 역사, 포용의 역사, 문자의 역사 차원에서 훈맹정음과 관련한 유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는 박두성 점자를 문자의 역사, 국어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서 한글 점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위상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식민지 시대 사회상 속에서 한글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것이 시각장애인과 한국사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지를 조명해, 이를 소수자의 역사에 대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전시 등의 방식으로 점자를 익히는 체험과 결합해 입체적인 방식의 역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훈맹정음의 문화재적 가치는 첫째 국어학/문자사 차원의 가치가 있음. 두 번째로는 소수자의 역사, 세 번째로는 식민지 사회문화사의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음.

- 점자는 원래 프랑스에서 군사문자의 일종으로 시작되었고, 4점 점자, 6점 점자의 형태로 혼용되었음. 점자의 도입은 근대적 특수교육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점자 이전에는 구술교육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죽력 등 초보적인 형태의 기호를 활용해 중요한 지식을 습득했음. 문자문화가 발달해가면서, 다양한 지식을 구전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그래서 문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음. 우선은 미국의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 개발했지만 이것은 뉴욕포인트 식의 4점 점자로 한글과는 자모 체계에서 맞지 않아서 조선인들이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박두성은 제생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인식해 6점 점자의 방식으로 한글점자인 훈맹정음(1926)을 창제.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의 기본의 방식이 되고 있음. 그래서 특수문자의 역사에서 훈맹정음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등록신청이 된 문화재들은 점자의 제작과정, 점역 도서 제작 도구 및 점역된 문건 등 점자 문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것은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체계가 시각장애인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음. 시각장애인들은 점복업자나 안마업에 종사했는데,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그리고 교양인으로서의 지식을 위해 다양한 도서를 점역했음. 본인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점복맹인들을 위한 경전을 점역하기도 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근대 사회에서 적응하고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역도서를 통해 지원한 것임. 또 다른 한편에서는 31운동, 백범 김구 등 다양한 역사도서와 문학 도서를 점역해, 시각장애인들이 문자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점역해서 보급했음. 우어의 경우 교양서로 점역된 것으로 보임. 이렇듯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생활, 교육, 직업 등 전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 갈수 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마련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음.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임
- 또한 박두성의 유물들은 당시의 도서문화사, 사회사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생활사적 자료임. 차녀인 박정희가 유물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기념관과 한글박물관에 나누어 기증을 했음. 일지/맹사일지에는 시각장애인 점자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 속에, 당시의 독서 문화 등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식민지 사회사에 대한 일종의 생활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7) 기타

○ 훈맹정음 문화재

<○○○○○○ ○○○>

1) 개요

○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시켜 온 것은 사회생활을 통한 협동에 의한 것임.

○ 인간의 동시적 협동과 계기적 협동은 말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의 결과임.

○ 그러나 말과 문자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이용할 수 없어서 협동을 통한 문화의 창조나 축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음.
○ 이러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手話)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點字)가 등장하게 되었음.
○ 특히 한국어를 말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로 한글 점자가 개발된 것은 최근세에 일어난 일임.
○ 한글 점자가 초기에는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한글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한글 점자이어서 표준화되기 어려웠음.
○ 이러한 시기에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새로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주었음.
○ 박두성 선생이 개발한 한글 점자의 이름을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명칭을 본따서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고 하였음.
○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한다면 '훈맹정음'은 '맹인'(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임.
○ 이 훈맹정음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또 이들을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어서 우리나라 문화사나 문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것임.
○ 이 훈맹정음과 연관된 유물들은 현재 두 곳에 집중적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한 곳은 송암박두성기념관과 한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임.
○ 이 두 곳 모두 송암 박두성 선생의 따님인 박정희 여사의 기증품임.
○ 송암박두성기념관의 소장 유물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들은 각각 그 특색이 있음.
○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 조선맹인사업협회가 1946년 11월 4일에 쓴 박두성 선생이 지은 한글점자 설명서임.
○ 갱지에 한글로 작성하고 노끈으로 묶어 제본한 원고 뭉치임.
○ 속표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박두셩 뎌

한글 뎜ㅅ자

4279년 11월 4일 발행

조선맹인사업협회

○ 이것으로써 이 원고가 1946년 11월 4일에 박두성 선생이 지은 '한글점자'란 책의 설명서임을 알 수 있음.
○ 다른 자료를 통해 이 글씨가 박두성 선생의 친필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원고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을 다시 세분하여 제목을 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음.
○ 그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음.

머리ㅅ말
목차
뎨一쟝 뎜ㅅ자
1. 뎜ㅅ자
2. 뎜ㅅ자틀
3. 뎜ㅅ자판의 죵류
4. 뎜ㅅ자판 검사
5. 뎜ㅅ자 조희
뎨二쟝 한글뎜ㅅ자
1. 중셩
2. 초셩
3. 초중셩 합하는 모양
3(4의 잘못). 종셩
4(5의 잘못). 시옷과 외
된시옷
군시옷
외
6. 략자
와
워
의
을(를)
은(는)
예
7. 부호
1. 장음표
2. 쇼거듭
3. 대거듭
4. 련속표
5. 수표와 수ㅅ자
6. 젼용략자

뎨三쟝 뎜ㅅ자를 배호려면
1. 뎜ㅅ자 익히는 법
2. 뎜ㅅ자 쓰는 법
3. 글 쓰는 법
4. 잘못 쓴 것
5. 매는 법
6. 보존하는 법
뎨四쟝 수학부호와 화학식긔호
1. 수학부호
2. 화학식긔호
뎨五쟝 음악부호
뎨六 쟝 외국뎜ㅅ자
1. 일본어뎜ㅅ자
2. 영어 뎜ㅅ자
1. 원쓰레일
2. 미국 쓰레일과 백이의 쓰레일
3. 뉴-욕 포인트
추린말

○ 1946년 10월 10일에 박두성 선생이 쓴 머리말에는 한글점자를 만든 박두성 선생의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음.

비행기는 하날에 날고 잠항뎡은 물ㅅ속에서 숨박곡질을 한다. 뎐긔는 넓은 셰상을 이웃으로 만들어 버렷다. 이것이 인간의 발달이니 모다 학문의 힘이다. 능한 목수는 몇 자 썩은 재목도 보리지 안코 능히 아로색여 귀물을 만들 수 잇다. 지테에 잇서서 가장 요긴한 눈을 일흔 젊은 불행이 아닐 수는 업지만은 뎜ㅅ자 연구는 과연 그들의 길재비요 등대로서 뎐화위복의 지남침이 될 수 잇스니 불행만을 한탄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앞 못보는 자녀를 가진 형뎨 부모는 물론이고 누구나 그들에 대하야 뜻잇는 이가 이 책을 들쳐 보고 그들을 일러 주고 지도해 주는 이가 잇다면 썩은 나무가 버림을 받지 아니할 거싱오 진실로 터럭 한 올을 썹어서 텬하를 리롭게 하는 공이 될 것이다. 그리하야 이 변변치 아니한 긔록이 어둔 밤의 불행한 그들에게 잇서서 조고마한 등불노릇이라도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야 미비한 뎜은 후일에 다시 실필 째가 잇슬 것을 기다리고 내어 놓은다.
단긔 4279년 10월 10일
박두셩

- 이 원고는 모두 약 80쪽 정도가 되며, 모든 내용이 빠진 내용이 없이 전부 그대로 전하고 있음.
- 중간에 인쇄한 훈맹정음 기호표가 붙어 있음.
- 이 원고가 출판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훈맹정음이란 한글 점자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1946년도에 만들어진 초기의 한글 점자에 대한 구조 및 사용 설명서이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나) 일지(日誌)

- 1926년 8월 12일부터 1954년까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자필 기록과 박두성 등이 수집한 자료임.
- 여러 종류의 편지지와 갱지에 펜으로 세로로 쓴 것으로 모두 177장에 이름.
- 표지에 '日誌'라고 묵서가 되어 있는데, 앞 부분에 "大正二十五年八月十二日 点字研究會組織發表"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26년부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 "四二八七年 七月 二六日 李相秦을 對同하고 京城駐在 웅크라에 事業援助 請願書를 提出하다"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54년까지의 기록임을 알 수 있음.
- 표기 문자는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고 가끔 일본의 카타카나도 보임.
- 내용은 육화사 설립, 훈맹정음 창제 시의 배점에 관한 기록, 육화사와 관련된 편지, 육화사의 예산, 점자 원판 목록, 시각장애업무와 관련된 기록, 박두성이 보낸 편지와 편지 봉투, 몇 장의 신문 스크랩 등임.
- 이 자료는 훈맹정음을 고안해 내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음.

(다) 맹사일지

- 맹사일지는 1926년경에 박두성 선생의 육필원고와 그가 가지고 있던 기록들을 묶어 한 책으로 만들어 놓은 일지임.
- 맹사일지는 아마도 '盲事日誌'로 해석되어 맹인사업과 연관된 내용을 기록한 일지로 보임.
- 표지에 '맹사일지'라고 쓴 첨지가 붙어 있음.
- '滿洲帝國政府'란 글씨가 있는 종이와 '仁川永化尋常小學校'라고 쓰인 종이, 달력 메모지, 갱지 등에 펜으로 쓴 것, 연필로 쓴 것, 그리고 유인본 등이 있고 신문 등을 스크랩한 것과 인쇄한 것을 붙여 놓은 것도 있음.
- 모두 248쪽으로서 내용은 조선맹인사업협회의 입회원서, 회원 현황, 맹서기(점자판)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점자성경 제작 목록 및 과정, 점자원판 목록, 지역별 시각장애인 명부, 사용한 비용 등임.
- 별도로 목차가 있거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 없이 쓴 것들을 나열하여 놓은 것임.
- 동일한 것을 여러 장 붙여 놓은 것도 많이 보임.
- 인쇄한 것 중 '盲書機使用法'은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훈맹정음과 연관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점자 원판은 1930년대초에 이솝우화를 제판기를 이용해 점자 원판에 찍어낸 아연판임.
- 한 장의 아연판을 반으로 접어서 점자제판기에 붙인 후 점자를 입력한 것임.
- 위에 '우어'라는 제목이 보이는데, 이것은 '寓語'로 해석됨.
- 곧 '우화(寓話)'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성경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점자판으로 만들어 보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임.
- 모두 41장으로 페이지 번호가 1에서 41까지 있고 마지막 문장이 종결 상태로 있다고 하여 한 질이 누락된 것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매판마다 六花(조선어 점자 연구회) 인장이 박혀 있어서 훈맹정음으로 된 문학자료의 실물이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보임.
- 점자원판 41장의 내용을 통해 세부 점자 표기와 점자 출판 형식 등 우리나라 초기 점자 연구와 지속적인 점자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음.

(마) 제판기

- 1910년-1930년대에 박두성이 사용했던 제판기로서 아연판에 점을 찍어 점자 원판을 만들어 냈던 기계임.
- 철로 제작되어 있으며 6개의 점을 찍는 스위치와 다양한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점자를 인쇄할 때, 한 부씩만 제작이 가능한 점자판이나 점자 타자기와는 달리 아연판을 이용하여 점자 원판을 만들어 동일한 책을 여러 권 제작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활판 인쇄에 비교한다면 조판기에 해당함.
- 당시의 사진을 통해 박두성이 직접 활용한 제판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제판기라고 볼 수 있음.

(바) 점자인쇄기-로울러

- 1910년~1930년대에 박두성 선생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자인쇄기임.
- 점자가 찍힌 점자 원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이 기계에 통과시킴으로써 종이에 점자를 찍는 기계임.
- 현대 연활자본과 비교하여 보면 인쇄기에 해당함.
- 철로 제작되었으며 2개의 원통형 쇠뭉치와 그 밖의 다양한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 제판기로 만든 아연판을 이 기계를 이용하여 점자책을 대량으로 그리고 단기간 내에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임.
○ 오늘날 활판인쇄술에서의 인쇄기와 동일한 것임.

(사) 점자타자기
○ 1910년~1950년대에 송암 박두성 선생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자타자기임.
○ 밑판은 목재로, 그리고 나머지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것임.
○ 타자기를 덮는 덮개가 있고, 그 덮개에 손잡이가 있음.
○ 6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현재도 제대로 작동되는 점자타자기임.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6점 점자타자기로 볼 수 있음.

(아) 촛불
○ 1949년 7월 11일에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점자로 만든 소식지임.
○ 이름을 '촉불'(燭불)이라고 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치 '촛불'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 이러한 '촉불'과 같은 소식지는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일종의 회전지(回轉紙)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여러 소식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이 '촉불'은 박두성 선생과 그의 제자인 이상진(시각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점자판과 점자 타자기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표지에는 '촛불 88호'라는 소식지 이름이 있고 가운데에 '永訣 金九先生'이라는 제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구 선생이 살해 당한 1949년 6월 26일 이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만든 징후로 보아 이 소식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빠른 소식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촛불 88호'이어서 이러한 점자 소식지가 88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 있는 '촉불'은 이 88호가 유일한 것으로 보임.
○ 속의 종이는 '定期積金領收證切手受拂簿'라고 쓰인 종이에 점자로 타자하여 만든 것으로 모두 51쪽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좌철(左綴)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점자책의 형태나 모양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점자의 상태가 명료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문자로 복구시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가) 한글점자
○ 한글점자는 양지에 연필 또는 펜으로 필기한 것이고 첨지가 곳곳에 붙어 있어서 비록 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산화(酸化)되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들을 모두 정밀하게 촬영하여 두고, 또한 이들을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로 입력하여(표기법 등도 그대로), 별도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음.

(나) 일지(日誌)
○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역시 양지 내지 갱지로 되어 있어서 산화되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밀하게 촬영하여 두고 다시 이들을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로 입력하여 원본 내용을 보존해 둘 필요가 있음.

(다) 맹사일지
○ 보존상태는 양호하지만, 갱지나 양지에 쓰인 것이고 또한 첩지(帖紙)가 많아서 사진으로 촬영해 두어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정밀촬영과 함께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로 입력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그러나 아연판이므로 눌리면 점자가 훼손될 수 있으니 각별히 보존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제판기
○ 철로 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임. 그러나 부식 등의 위험이 있으니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바) 점자인쇄기-로울러
○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는 부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 점자타자기
○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현재도 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임.

(아) 촛불
○ 매우 중요한 유물이지만 점의 크기가 심하게 눌리고 마모된 부분이 있는 상태이어서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현재는 읽을 수 없는 상태로 보임.
○ 따라서 눌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밀하게 판독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송암박두성기념관에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잘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의 소유자인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송암점자도서관)에서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전시물 중 실내에 방치된 상태로 전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리상자 안에 보존하면서 전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훈맹정음이란 점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준 역사적 사건을 모든 국민들에게 크게 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업적이 나오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후대에 계속 전하기 위하여 유물들을 문화재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문자가 없는 국민들에게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만들어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국보 제70호),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업적들이 나오고 있는 현대에 시각장애인들에게 훈민정음과 다를 바 없는 훈맹정음을 좀 더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글을 과학화하여 모스 부호로 만든 '전보장정'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형편이므로 이 점자에 관한 유물들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훈맹정음에 대한 유물은 현재 송암박두성기념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두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 따라서 이 두 소장처의 유물들은 훈맹정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데 모두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일지(日誌)'와 '맹사일지'는 박두성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것을 보급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유물이며, '한글점자'는 '훈맹정음'을 만든 목적,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며, '점자원판-우어(우화)'은 그렇게 해서 한글 점자책으로 만든 결과물로서의 유물임

○ '제판기'와 '점자인쇄기-로울러'와 '점자타자기'는 그러한 한글 점자책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기계들로 된 유물이며, '촛불'은 한글 점자책을 이용하여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활용한 실재체(實在體)의 유물이어서, 훈맹정음을 고안하고 원리를 세우고 이를 보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나라 문화사상 반드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단 인장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물이지만, 훈맹정음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 만든 사업체에서 사무용으로 필요한 용품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 ○○○>

1) 개요

○ 훈맹정음은 박두성 선생이 만든 한글점자의 명칭으로 1926년 11월 4일에 반포함.

○ 박두성 선생과 한글점자 창안

-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평양에서 홀여사가 만든 4점형 평양점자를 배운 일부 학생들이 입학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동기가 시각장애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박두성 선생에게 6점형 한글점자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박두성 선생은 한글점자를 만들 결심을 하고 한글의 창제 과정 연구를 시작하여 1921년에 '3.2점식 점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음.
- '3.2점식 점자'를 보완하기 위해 1923년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언문청을 두었다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제자 8인과 '조선어점자 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한글점자연구를 착수한지 3년 4개월만인 1926년 8월에 완성하여, 훈민정음이 반포 480주년 해이면서 처음으로 축하 기념식을 올리는 '가갸날'인 11월 4일에 훈민정음과 발음이 비슷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맹정음'으로 발표하였음.
- 당시의 '훈맹정음' 창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인 문자 창제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창안한 이후 1946년 조선맹인사업협회 발행으로 점자, 한글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 부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 구성되었고, 한글점자의 원리와 구성을 정리하여 한글에서 외국어 점자까지 정리하여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문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음.

나. 일지(日誌)

○ 박두성 선생이 1926년 8월 12일부터 1954년까지 시각장애 관련 업무를 기록한 일지로 육화사 설립, 훈맹정음을 만들 때 배점을 정한 것, 육화사에서 보낸 편지 4종, 초년도 예산, 한글점자 서식 등 한글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과정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창안과 더불어 교육 및 보급을 직접 관리했음을 추정함.

다. 맹사일지

○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운영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입회원서 및 회원 입회 현황, 점자 통신 교육 관련 자료, 한글점자 연습, 책 빌리는 규정, 책을 부치는 방법, 훈맹정음 표, 맹서기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성서간행표와 성서복사표, 점자 도서 제작 현황, 점자 원판 목록, 지역별 시각장애인 명단 기록은 점자 보급과 최초의 점자도서관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음.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점자서를 대량으로 인쇄할 때 사용하는 얇은 아연판에 점자를 찍은 원판으로 점자 찍는 방식에서 문단 구별 없는 초기 점자 표기이며, 연속표, 장음표, 군쇼, 재서표, 된소리표, 소거듭 사용 등 점자 표기 변천 과정과 특성을 알 수 있고, 점자원판을 보관함으로 자료보존 및 재사용하여 제작 및 보급에 효율성을 볼 수 있음.

마. 제판기

○ 아연판에 점을 찍어 점자 원판을 제작하는 철제로 된 기계이며, 1910년에서 30년에 박두성 선생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판기로 원판 1종으로 다량의 점자 도서를 제작할 수 있는 당시 혁신적인 기기로 볼 수 있음.

바. 점자인쇄기-로울러

○ 점자제판기로 만든 점자 원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로울러를 밀어 점자가 찍히게 하는 점자인쇄기로 박두성 선생이 1910-1930년대 점자책을 제작할 때 사용한 기기이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 점자원판 등을 사용하여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관련 기기에 사료적 가치가 있음.

사. 점자타자기

○ 박두성 선생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알루미늄과 나무로 제작되었고, 6개의 글쇠를 조작하여 6점형 점자를 찍을 수 있어 한글점자를 찍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점자 자료 제작에 쉽게 활용하여 편지 및 개인 문서 기록

아. 촉불

○ 촉불(촛불)은 1947년부터 발행하여 한국전쟁 전까지 주간지로, 현존하는 것은 1949년 7월 11일에 발행된 88호가 유일하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신문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는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박두성 선생이 당일 신문기사에 대한 논평과 해설을 하고 제자 이상진이 점자로 받아 적고 제본해서 순서대로 돌려 읽었으며 다시 박두성 선생에게 돌아오도록 회람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점자타자기, 제판기, 로울러, 인장 등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종이류에 해당하는 일지, 맹사일지, 촉불 등은 양호하지 않아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박두성기념관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종이류는 장기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글점자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점자 및 점자자료 제작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인 점자의 출발과 창안에 대한 자부심, 창의성, 역사성이 후대에 활용가치가 높음.

○ 훈맹정음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반영하고, 6점형 점자를 이용해서 받침(종성)과 약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점자 개정에 있어서 원리와 정체성을 널리 활용할 가치가 있음.

○ 한글 이외의 또 다른 글자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훈맹정음 관련하여 박두성기념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점자 제작을 위한 기기로 단체 및 공적 유물들이었고,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보급이 사적 관련 유물이었음.

7) 등록가치의견

○ 일지와 맹사일지,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인 훈맹정음 창안과 보급에 대해 매우 귀중한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촉불(촛불)은 박두성 제자 이상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회람지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점자타자기, 점자제판기, 로울러는 박두성 선생이 점자도서와 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는 데에 사용한 기기로 등록 가치가 높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

○ 문화재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하나, 한글점자를 포함한 명칭을 만들었으며 좋겠음. 예) 한글점자 훈맹정음, 사유: 훈맹정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이 훈민정음의 오타로 생각할 수 있음.

안건번호 근대 2020-10-03

3.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9.22.)를 거쳐 등록 예고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	7건 14점	33.5×21.3 cm 등	1946년 등	국립한글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9월)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등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유물 27건 발굴

○ ('20.9.1.)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0.9.22.)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4) 등록예고 : '20.10.15.~11.13. (30일간)　　*의견 없음

라. 세부목록

문화재명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훈맹정음 *점자표	1건 1점	29.8×19.5	1926년 추정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1건 1점	33.5×21.3	1946년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	1건 1점	22.5×16.3	1946년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1건 1점	34.5×21.0	1949년
한글점자 초고	1건 2점	10.7×21.3, 10.7×22.4	1950년대 초반 추정
훈맹정음의 유래	1건 3점	34.3×21.0	1949년 추정
한글점자 쓰는 법	1건 5점	26.0×19.0	1930~40년대 추정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위원 ○○○('20.9.1.)

- '훈맹정음'은 송암 박두성이 만든 한글 점자의 명칭으로, 관련 유물들은 주로 국립한글박물관과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이 중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들은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등으로,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의 유래와 작성 원리, 그리고 한글 점자를 보급한 자료들로서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매우 큼.

ㅇ ○○○○○○ ○○○('20.9.1.)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점자 제작 이후, 점자 제작 원리에 대해 작성한 원고와 점자를 보급한 문건들이 주로 소장되어있음. 훈맹정음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의 기본의 방식이 되고 있으므로 특수문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을 위한 도구를 마련해준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역사와 한국 사회의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귀중하며, 당시 사회사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생활사적 자료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ㅇ ○○○○○ ○○○('20.9.1.)

- '훈맹정음'은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준 중요한 기능을 하였음. 국립한글박물관에는훈맹정음과 관련하여「한글점자」육필 원고본, 「한글점자의 유래」초고본 등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훈맹정음이 창안되어서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제시하여 주는 유물들임. 이들은 훈맹정음의 창안과 그 구조 및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함.

ㅇ ○○○○○○○ ○○○('20.9.1.)

- '훈맹정음'은 박두성이 1926년 11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발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인 문자 창제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또한 '훈민정음의 유래' 등을 통해 훈민정음의 우수성, 역사성, 독창성을 보았음. 훈맹정음의 창제 및 반포가 10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가치와 제자원리가 높아 문화재 등록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훈맹정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3. 소 유 자 : 국립한글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20.9.1.)

<문화재위원 ○○○>

1) 개요

○ 훈맹정음은 1926년 송암 박두성이 만든 한글점자의 명칭임.

○ 박두성(朴斗星, 1888-1963, 호 송암(松庵)은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點字)를 창안한 교육자임.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 교사로 있다가 1913년 제생원 맹아부(서울 맹학교의 전신) 교사로 취임함. 일어 점자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학생들과 함께 조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하여 1926년 한글 점자를 완성하고 그 명칭을 '훈맹정음(訓盲正音)'으로 함.

○ 1933년 제생원 맹아부를 퇴직하고 인천 영화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자택에서 조선맹인사업협회 이름으로 우편을 이용한 통신교육을 통해 전국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을 보급하고 한글 점자로 맹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 박두성은 기독교인으로서 대영성서공회의 지원으로 1931년부터 성경을 점역하기 시작하여 1948년까지 신약전서 전권을 점역 출판하였으며, 성경뿐 아니라 『속담집』, 침구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모은『금싸라기』 『은싸라기』와, 『천자문』『명심보감』『편지틀』『천수경』『불쌍한 동무』등 점역서를 계속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익히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진력함. 해방 후 1947년부터는 점자 회람지 『촉불』을 제작하여 돌려보게 함으로써 맹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맹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함. 이후 1963년 타계할 때까지 한글 점자로 맹인들의 교육에 힘써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림.

○ 1962년 국민포상을 받았으며, 타계한 뒤인 1992년 정부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고, 2002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기리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됨.

○ 한글 점자는 훈맹정음보다 평양에서 선교를 하던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Hall, 1865-1951)이 뉴욕식 4점 점자를 이용하여 만들어 맹인 여성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었음. 그러나 영어 알파벳을 응용한 이 4점식 점자는 한글의 종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박두성과 조선어점자연구회원들은 한글의 특성을 살려, 당시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던 브레유(Braille) 식 점자를 토대로 만든 일본 6점 점자를 응용해 6점으로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자를 만들고 이를 "훈맹정음"이라고 명명함.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박두성의 차녀 박정희가 보관하던 것을 2014년에 기증한 것임. 박두성의 육필 원고류, 한글 점자 일람표, 점자 편지, 점자 문서류, 조선맹인사업협회 규칙, 박두성 및 가족 사진 등 40건 105점이 소장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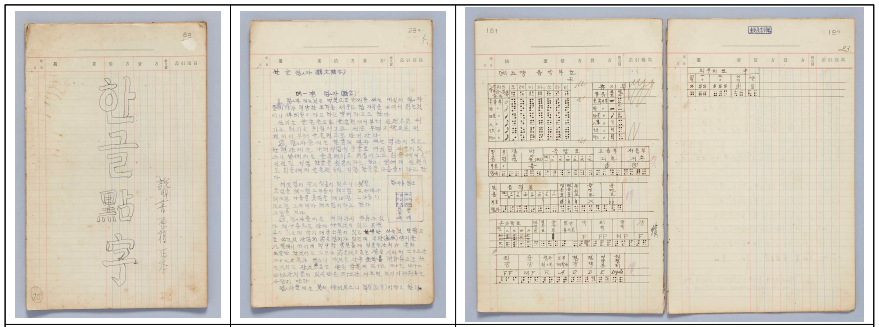
○ 박두성의 유물은 현재 주로 인천의 송암 박두성기념관과 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박두성 기념관에 기증된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훈맹정음을 창안하는 과정과 한글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기구, 기록 등 좀더 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료들이라면, 한글박물관에 기증된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원고의 초고들, 점자 편지, 박두성 및 관련 인물들의 사진 등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의 자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한글 점자」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박두성이 21.3x33.5cm 크기의 서류용지에 쓴 「한글 점자」육필 원고임. 16장 27면에 걸쳐 머리말, 목차에 이어 본문으로 점자, 한글 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기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의 6개 장으로 내용을 정리함. 각주 및 메모가 붙어 있는 초고 정서본임.

○ 1926년 훈맹정음을 만든 뒤 보완된 완성본 한글 점자를 해방 후 출판하기 위해 정리한 원고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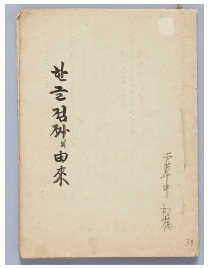


「한글 점자」표지 | 「한글 점자」제1장 | 「한글 점자」음악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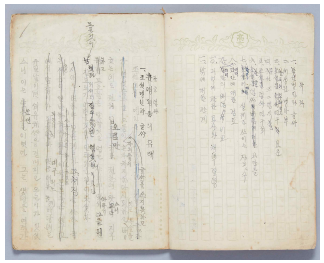
(나)「한글점자의 유래」초고본(박두성)

○「한글 점자의 유래」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정리한 육필 초고본임. 22.5x16.3cm 크기의 '高女' 표기와 문양이 있는 원고지 및 다른 원고지에 작성했고, 퇴고의 흔적이 많이 있는 초고본임. 세로 쓰기로 오른쪽으로 선장되어 있음. 맨 마지막 장에 1946년 10월 임시 입법의원 대의원 선거에서 점자 투표를 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1946년 10월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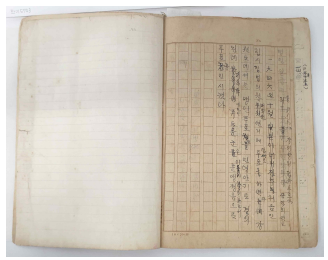
○ 내용은 조선 맹인과 점자, 제생원 맹아부, 한국어 부레일(점자) 연구의 표준, 우선 3.2 점식, 조선문 점자 연구회, 한글 점자 고안들, 한글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모 수, 여러 안의 검토, 여러 안의 배점 비교, 기억에 관한 조사와 채택 결정, 밖에 대한 관계 등 목차로 서술함. 이 내용은 1956년에 박두성이 발표한「한글 점자에 관하여」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그 초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한글 점자의 유래」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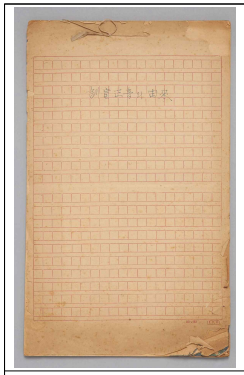
「한글 점자의 유래」목차와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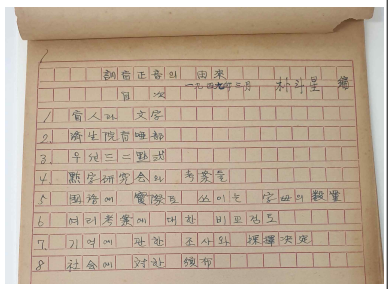
「한글 점자의 유래」마지막 장

(다) 「훈맹정음의 유래」초고본(박두성,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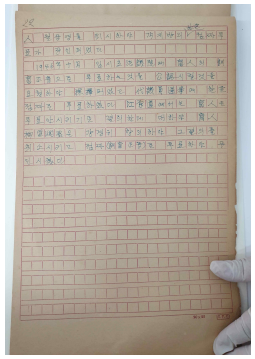
- ○ 「훈맹정음의 유래」는 박두성이 위의 「한글 점자의 유래」와 같은 내용을 좀더 정서하여 34.5x21cm 크기 400자 원고지에 정리한 것임. 1946년에는 보통 명사로 '한글 점자'로 표기했었으나 1949년의 이 초고본에서는 고유명사인 '훈맹정음'을 살린 점이 다름.
- ○ 목차 부분에 '1949년 3월 박두성 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음. 한글 박물관에서는 1946년으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나, 박두성의 기록에 따라 1949년 3월로 정정해야 할 것임. 내용이 1956년에 박두성이 발표한 「한글 점자에 관하여」와 거의 일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된 것으로 보임.
- ○ 내용은 22쪽으로 정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표지 및 내지 하단부에 결실 및 잉크 오염이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함.



「훈맹정음의 유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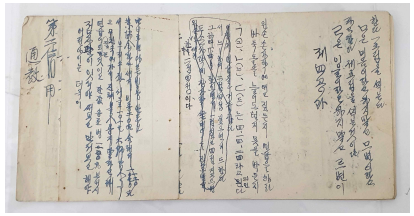
「훈맹정음의 유래」 목차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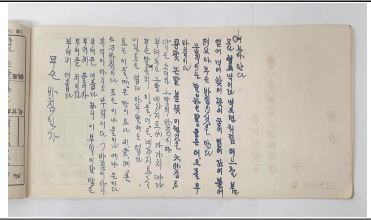


「훈맹정음의 유래」 마지막 장

(라)-1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 한글점자에 관한 내용을 적은 일종의 메모장임. 10.7x22.4cm 크기의 수표책을 이용하였으며 종이는 모두 4장 8면임. 글씨는 세로 쓰여 있으나 읽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진행되어 있음.
- ○ 작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면지를 사용한 수표책에 적힌 "조선식산은행"은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은행이나 1950년 2월에 상호가 "한국식산은행"으로 변경되었음. 수표 책의 문서에 '83년' 표기가 있는데 이는 1950년이므로, 조선식산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폐기된 수표책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문서는 대체로 1950년대 초반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 ○ 첫 장에 "어린아이는 점자판이 있어야 써보고 만져보고 해야 연습이 되는 것이오"라고 쓴 메모지가 붙어 있으며 제3공과부터 시작하고 있어 앞 장이 탈락한 것으로 보임. 제7과까지 점자판에 대한 설명, ㄱㄴㄷ 등 자모에 관한 설명, 받침에 대한 설명, 모음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완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 아래의 '바'번 한글박물관 소장 한글 점자 초고(소장 번호 한기 5729)가 제1공과와 제2공과를 담고 있어 이 한글 점자 초고(소장 번호 한기 5726)의 그 뒷부분으로 보임. 이 두 유물은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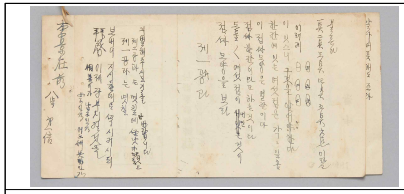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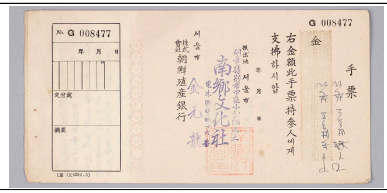


한글 점자 초고 1면, 5면

(라)-2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 『한글점자』초고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한 글임. 10.7x21.3 cm 크기의 수표책에 메모처럼 적은 것으로 정서된 원고는 아님. 3장 6면으로 되어 있으나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음.
- ○ 작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면지를 사용한 수표책에 적힌 "조선식산은행"은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은행이나 1950년 2월에 상호가 "한국식산은행"으로 변경되었음. 수표 책의 문서에 '83년' 표기가 있는데 이는 1950년이므로, 조선식산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폐기된 수표책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문서는 대체로 1950년대 초반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 ○ 초고의 첫 면에 "이경재 전"으로 되어 있고 "상선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언제 실명인가" 하고 묻고 "이제 공부시킬 것을 보내니 지시하는 대로 시키되 제1공과는 몇 일 제2공과는 몇 일에 끝났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적고 있어, 지인의 자녀를 위해 알기 쉽게 한글 점자를 익히는 방법을 세세히 적은 글로 보임. 제1공과와 제2공과까지만 적혀 있어, 위의 '라' 번 한글 점자 초고(한글 박물관 소장 번호 한기 5726)의 앞부분으로 보임. 따라서 이 두 유물은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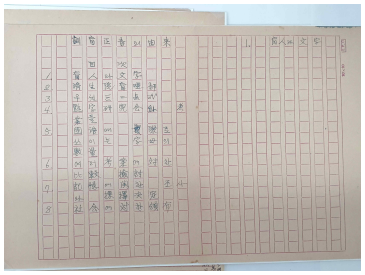


한글 점자 초고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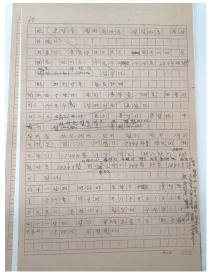
한글 점자 초고 맨 뒷면

(바)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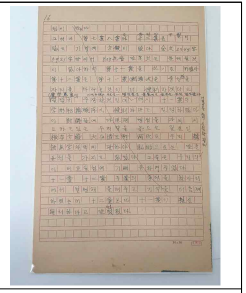
○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의 일부로 목차와 15, 16쪽의 3장만 남아 있음. 한글박물관 소장 번호 5714 「훈맹정음의 유래」와 같은 내용이나, 정서하다가 낙장된 것으로 보임.



「훈맹정음의 유래」목차



「훈맹정음의 유래」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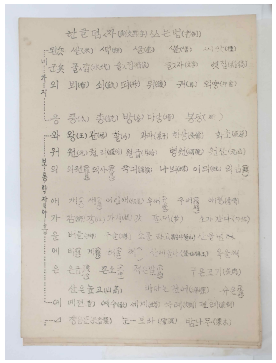
「훈맹정음의 유래」16쪽

(사) 한글점자 쓰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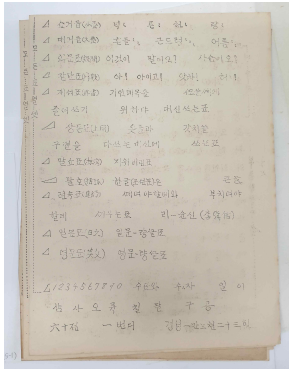
○ '한글 점자 쓰는 법'은 된시옷, 군시옷, 복모음, 소거듭, 대거듭, 의문표, 감탄표, 줄여쓰기, 연속표 등을 정리한 것으로, 등사로 앞뒤 1장으로 만든 것임. 같은 내용이 5장임.

○ 제목에 '한글점자(鮮文點字)'라고 써 있는데, 1946년에 정리한 (가) 「한글 점자」 육필 원고본에서는 '한글점자(韓文點字)'라고 쓴 것과 비교하면 1945년 이전에 한글점자를 쓰는 방법을 보급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임.

○ 한글 점자 쓰는 법이 이 한 장뿐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임. 한글 점자 쓰는 법을 낱장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보임. 한글 점자의 보급 방식을 알려주는 자료임.



한글 점자 쓰는 법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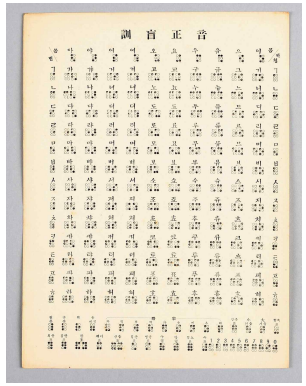


한글 점자 쓰는 법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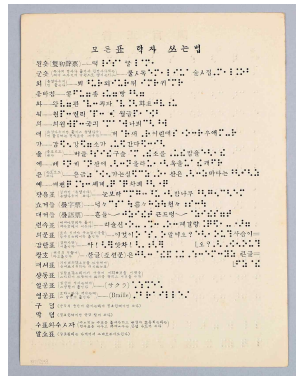
(아) 훈맹정음

○ 인쇄본 「훈맹정음」으로 박두성이 1926년에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완성한 뒤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 장으로 한글의 점자화 모양을 정리하여 배포한 것임. 29.8x19.5cm로 점자가 입력될 수 있는 도톰한 종이를 사용함.

○ 묵자(문자)와 점자가 함께 있어 정안자(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를 보고 한글 점자를 배울 수 있게 한 것을 알 수 있음.



훈맹정음 앞면



훈맹정음 뒷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함. 다만 「훈맹정음의 유래」초고본은 원고지 일부가 박락되고 잉크가 오염된 부분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한글박물관에서 개별 파일 및 비닐에 잘 보존하고 있음. 다만 종이가 오래 된 것인 만큼, 향후 중성지 등 장기적인 보존을 염두에 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글 점자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이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유물임. 장애인의 역사에 관한 교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의 유래와 작성 원리, 그리고 한글 점자를 보급한 자료들로,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임. 등록 가치가 매우 큼.

○ 한글 박물관 조사 당시에는 박두성 유족이 기증한 27건 91점을 조사하였으나, 훈맹정음과 직접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편지나 사진 등을 제외하고 「한글 점자」 육필 원고본,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한글점자 초고(라, 바), 훈맹정음의 유래, 한글점자 쓰는 법, 훈맹정음 7건 14점의 유물에 대해서 등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7) 기타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훈맹정음'은 1926년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를 이르는 고유명사이며, 한글을 이르는 '훈민정음'과도 연관을 가지며 시각장애인의 문자라는 뜻을 잘 살리고 있음. 또한 현대 한글 점자가 훈맹정음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문자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 ○○○>

1) 개요

○ 한글박물관의 훈맹정금 관련 유물은 따님인 박정희 여사가 작고한 이후 유족들이 기증한 것임. 한글박물관의 유물들은 대체로 개인의 서신, 그리고 육필 원고 등이 보관되어 있음. 그래서 점자 제작 이후, 점자 제작 원리에 대해 작성한 원고와 점자를 보급한 문건들이 주로 문화재의 등록대상임

○ 박두성은 한성사범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제생원 교사가 된 이후, 일제의 교육과 조선인들의 생활 간의 괴리를 느껴 점자를 개발했음.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에게 맞는 문자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었지만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이를 개발하고, 조선인 맹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음.

○ 식민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우선은 선교사 이후에는 일본 총독부에해 제생원에서 시작됨.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은 뉴욕포인트식에 기반에 점자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한글의 자모체계와 맞지 않아 익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함. 당시 제생원의 교사를 하고 있었던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교육을 받으며 해부학 등을 배우는데 일본어 점자를 익혀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자를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점자의 창제 과정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맹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몇가지 안을 두고 함께 만들어간 것임. 그래서 식민지 사회에서, 조선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동창작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던 단체의 이름은 처음에는 육화사였고, 이후 조선맹인사업협회로 바뀌어갔음. 그래서 박두성의 점자창제는 단순히 박두성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당시 박두성의 제자들이었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협동하여 작업한 것임

○ 그래서 점자 개발 이후에도, 수많은 점자책의 제작,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실제로 점자를 익히고, 점자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음. 또한 이것은 박두성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당시 박두성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행한 사업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음. 맹인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제공하고자 했음. 그래서 박두성은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해 맹인 교육, 맹인 교육을 위한 기본적 도구인 점자를 개발했고, 현재 문화재로 신청하는 유물들은 그런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임. 유물들은 근현대 민족운동과 포용적인 소수자 역사의 중요한 유물이라 평가함

○ 훈맹정음의 의의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있음.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는 경기지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지방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기에 지방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하거나 여러 점자 강습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 점자를 학습하는 것은 우선 안마사나 판수 등의 직업활동에 기반이 되는 실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였음.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변화와 교양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책들(문학, 역사, 시사)을 점역해 보급했음. 훈맹정음은 박두성의 실천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와 시각장애인들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 가능했음

○ 참고자료

- 박두성, 「한글점자에 관하여(훈맹정음)」, 『성서한국』 제2권 제2호, 대한성서공회, 1956, 10~19쪽.
- 강현진, 「송암 박두성의 시각장애 교육활동」,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주윤정, 「식민지기 문화정책의 균열: 박두성의 訓盲點字와 盲人」, 『인천학연구』, 2008. 9(9) p. 245-270.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 점자」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음. 점자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임

(나) 「한글점자의 유래」초고본(박두성)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1956)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으며 내용이 거의 일치함.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점자의 역사와 소개, 기존의 방식 소개, 점자연구회의 활동내용, 채택과정에 대해 소개되어 있음

(다)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1946)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점자의 역사와 소개, 기존의 방식 소개, 점자연구회의 활동내용, 채택과정에 대해 소개되어 있음

(라)-1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점자의 역사와 소개, 기존의 방식 소개, 점자연구회의 활동내용, 채택과정에 대해 소개되어 있음

(라)-2『한글점자』초고(박두성)

○ 가, 나, 다, 라-1와 같은 원고의 판본인데 3장만 남아있음

(마)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 메모의 형식으로 한글 점자에 대해 정리한 것임

(바) 한글점자 쓰는 법

○ 한글점자의 약자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56년『한글점자의 유래』에 모든표 약자 쓰는 번으로 기록되어 있음. 56년 원고 이전에 정서한 것으로 보임

한글점자의 유래(1956)

(사) 훈맹정음

○ 1926년에 훈맹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건. 묵자와 점자가 함께 있으며 이것을 보급하여서 사람들에게 훈맹정음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박물관에서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단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 연구가 좀더 이루어져서 의미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점자로 된 문헌 등의 경우에는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자 문건들을 묵자로 전환해서 내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박두성의 점자와 점자보급활동은 한국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소수자의 역사, 포용의 역사, 문자의 역사 차원에서 훈맹정음과 관련한 유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는 박두성 점자를 문자의 역사, 국어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서 한글 점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위상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식민지 시대 사회상 속에서 한글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것이 시각장애인과 한국사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지를 조명해, 이를 소수자의 역사에 대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전시 등의 방식으로 점자를 익히는 체험과 결합해 입체적인 방식의 역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훈맹정음의 문화재적 가치는 첫째 국어학/문자사 차원의 가치가 있음. 두 번째로는 소수자의 역사, 세 번째로는 식민지 사회문화사의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음.

- 점자는 원래 프랑스에서 군사문자의 일종으로 시작되었고, 4점 점자, 6점 점자의 형태로 혼용되었음. 점자의 도입은 근대적 특수교육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점자 이전에는 구술교육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죽력 등 초보적인 형태의 기호를 활용해 중요한 지식을 습득했음. 문자문화가 발달해가면서, 다양한 지식을 구전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그래서 문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음. 우선은 미국의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 개발했지만 이것은 뉴욕포인트 식의 4점 점자로 한글과는 자모 체계에서 맞지 않아서 조선인들이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박두성은 제생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인식해 6점 점자의 방식으로 한글점자인 훈맹정음(1926)을 창제.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의 기본의 방식이 되고 있음. 그래서 특수문자의 역사에서 훈맹정음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등록신청이 된 문화재들은 점자의 제작과정, 점역 도서 제작 도구 및 점역된 문건 등 점자 문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것은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체계가 시각장애인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음. 시각장애인들은 점복업자나 안마업에 종사했는데,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그리고 교양인으로서의 지식을 위해 다양한 도서를 점역했음. 본인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점복맹인들을 위한 경전을 점역하기도 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근대 사회에서 적응하고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역도서를 통해 지원한 것임. 또 다른 한편에서는 31운동, 백범 김구 등 다양한 역사도서와 문학 도서를 점역해, 시각장애인들이 문자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점역해서 보급했음. 우어의 경우 교양서로 점역된 것으로 보임. 이렇듯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생활, 교육, 직업 등 전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 갈수 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마련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음.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역사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임

- 또한 박두성의 유물들은 당시의 도서문화사, 사회사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생활사적 자료임. 차녀인 박정희가 유물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기념관과 한글박물관에 나누어 기증을 했음. 일지/맹사일지에는 시각장애인 점자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 속에, 당시의 독서 문화 등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식민지 사회사에 대한 일종의 생활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아울러 조사 당시에 27건 91점을 조사하였으나, 훈맹정음과 직접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8건 14점의 유물에 대해서 등록 추진함.

<ㅇㅇㅇㅇㅇ ㅇㅇㅇ>

1) 개요

○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시켜 온 것은 사회생활을 통한 협동에 의한 것임

○ 인간의 동시적 협동과 계기적 형동은 말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의 결과임

○ 그러나 말과 문자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이용할 수 없어서 협동을 통한 문화의 창조나 축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음

○ 이러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등장하게 되었음

○ 특히 한국어를 말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로 한글 점자가 개발된 것은 최근세에 일어난 일임

○ 한글 점자가 초기에는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한글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한글 점자이어서 표준화되기 어려웠음

○ 이러한 시기에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새로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주었음

○ 박두성 선생이 개발한 한글 점자의 이름을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명칭을 본따서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고 하였음

○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한다면 '훈맹정음'은 '맹인'(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임.

○ 이 훈맹정음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또 이들을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어서 우리나라 문화사나 문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것임.

○ 이 훈맹정음과 연관된 유물들은 현재 두 곳에 집중적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한 곳은 송암박두성기념관과 한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임.

○ 이 두 곳 모두 송암 박두성 선생의 따님인 박정희 여사의 기증품임.

○ 송암박두성기념관의 소장 유물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들은 각각 그 특색이 있음.

○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 점자」 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박두성 선생이 친필로 쓴 '한글 점자'에 대한 설명서임.

○ 부기장에 가로로 쓴 원고인데, 초벌은 연필로 쓴 후 다시 펜으로 덧칠해 쓴 것과 펜으로 쓴 것의 두 종류가 있음.

○ 첫장에 제목은 '한글 點字'라고 하였고, 첩지(帖紙)가 붙어 있는데, '造版(組版의 잘못)에 注意할 것'이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쇄하기 위한 초벌 원고로 추정됨.

○ 앞에 머리말, 목차가 있고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은 제1자에서부터 제6장까지로 되어 있음

제1장 : 점자
제2장 : 한글 점자
제3장 : 점자를 배우려면
제4장 : 수학부호와 화학식 기호
제5장 : 음악부호
제6장 : 외국어 점자

○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유물은 점자에 재한 전반적인 설명서임.

○ 머리말에 '단긔 4279년 10월 10일 박두성'이란 기록으로 보아 1946년 10월 10일에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원고가 틀림없음.

○ 이 한글 점자의 내용이 '한글, 수학부호, 화학식 기호, 음악부호, 외국어 점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훈맹정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임.

○ 따라서 이 '한글 점자 설명서'는 '훈맹정음 점자표'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교육시키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자료임.

(나)「한글점자의 유래」초고본(박두성)

○ '한글 점자의 由來'는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로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창안하기 이전까지의 한글 점자에 대한 유래를 적은 것임

○ '仁川公立高等女學校制定'이라 쓰인 242자(22X11) 원고지에 세로 또는 가로로 쓴 원고로 연필로 쓴 초고를 펜으로 수정 보완한 부분이 많음.

○ 목차는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음.

一. 맹인과 글짜
二. 제생원 맹아부
三. 한국어 부레일 표준
四. 우선 三二덤식
五. 덤짜 연구회
六. 한글 덤짜 고안들
七. 실졔로 쓰이는 자모ㅅ수
八. 여러 안에 대한 검토
九. 여러 안의 배덤 비교
十. 긔억에 관한 됴사와 채택 결뎡
十一. 밖에 대한 관계

○ 펜으로 수정한 부분은 1960년대 이후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조션문'을 '한국어'로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임.

○ '한국'이란 단어는 대한제국 이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한국어'란 단어는 1960년대부터 시용되었기 때문임. 그 이전에는 '조선어'였는데, '조선어'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하던 시기의 산물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고 하다가 1960년대에 와서 '한국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 목차와는 달리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한글 뎜짜의 유래
1. 조션 맹인과 글짜
2. 졔생원 맹아부
3. 조션문 뎜짜연구
4. 위션 三二뎜식을
5. 조션문 뎜짜연구회
6. 한글 뎜짜 고안들
7. 조션어에 실체로 쓰이는 자모ㅅ수
8. 한글 뎜짜에 대한 고안들
9. 각 배뎜안에 대한 검토
10. 여러 안의 배뎜ㅅ수 비교
11. 밖에 대한 관계

○ 그러나 수정 보완을 많이 함으로써 번호는 맞지 않음

○ 이 원고는 기존에 행해졌던 한글 점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전의 점자 고안들보다 박두성 선생이 제안한 고안한 한글 점자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어서, 한국의 한글 점자의 유래와 그 체계의 비교를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보임.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과 유사한 것을 주장하였음

1. 조선 맹인은 점자를 사용할 것
2. 매일 정기통신을 할 것
3. 조선어 점자에 관한 사업을 경영할 것
4. 각기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 줄 것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음.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내고 조선어 점자는 신안을 채택하기로 확정하고 訓盲正音(훈맹정음)으로 부르기로 하고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 반포 제8 회갑 당일을 기하여 이것을 발표하였다.'

(다)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1949)

○ '訓盲正音의 由來'는 400자 원고지에 펜으로 가로로 쓴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임.

○ 앞에 '1949년 3월 朴斗星 編'이라 되어 있어서 이 원고는 1949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됨.

○ 앞에 목차가 있는데, 모두 8항목으로 되어 있음.

1. 盲人과 文字
2. 濟生院 盲啞部
3. 우선 三二點式
4. 點字硏究會와 考案들
5. 國語에 實際로 쓰이는 字母의 數量
6. 여러 考案에 대한 비교 검토
7. 기억에 관한 조사와 採擇 決定
8. 社會에 대한 頒布

○ 뒤에 '훈맹정음' 기호표와 '모든 표 략자 쓰는 법'의 2장이 첨부되어 있음.

○ 이 원고는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완성본임,

○ 이 원고는 1949년에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원고가 틀림 없음.

(라)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 이 원고는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로 400자 원고지에 가로로 쓴 것임

○ 이 원고는 앞에서 언급한 훈맹정음의 유래(5714)와 동일한 내용임.

○ 그 목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순서	훈맹정음의 유래(5714)	훈맹정음의 유래(5728)
1	盲人과 文字	盲人과 文字
2	濟生院 盲啞部	濟生院 盲啞部
3	우선 三二點式	우선 三二點式
4	點字硏究會와 考案들	點字硏究會와 考案들
5	國語에 實際로 쓰이는 字母의 數量	國語에 實際로 쓰이는 字母의 數量
6	여러 考案에 대한 비교 검토	여러 考案에 對한 比較 檢討
7	기억에 관한 조사와 採擇 決定	記憶에 關한 조사와 採擇 決定
8	社會에 대한 頒布	社會에 對한 頒布

○ 단지 몇몇 한자 표기에만 차이가 있음

(마)-1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이 '한글 점자' 초고는 훈맹정음을 활용하는 법을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친필원고임.

○ 이 글은 '手票' 뒷장과 앞장에 메모를 해 둔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세로로 쓰이었지만, 세로편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쓰기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쓴 글임

○ 제1공과, 제2공과로 되어 있음

○ 그 내용 중 점자의 구조를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國文을 아는 이가 보고 일러주면 그것을 왼손 무명지끝으로 만저 보아 그대로 알어야 한다. 쏙 왼손으로 하고 한두 번에 몰라도 열뻔 백번이라도 만저 보아 알아야 한다,

제一공과
점짜 모양을 보라
도톨도톨 여섯 점이 내인 것이 점짜 한 칸이라 하는 것이다. 이 점짜 모양은 열칸이다. 한 칸에 잇는 여섯 점은 각각 일홈이 잇스니 이러케(괄호 안의 숫자는 한자임)
① ④
② ⑤
③ ⑥
一點 二點 三點 六點이라고 불른다

○ 또한 점자를 이용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설명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왼손으로 엄지가락은 빼고 둘째 손가락 셋재 손가락을 뻐치고 보면 두 손가락이 다 세 마디씩 여섯 매디가 쏙 점짜판 한 칸과 같다. 그 손 엄지가락으로 식지 끝매디를 짚으면서 一하고 가운데 매디를 二할 밑매디를 三 짚으면서 中지 끝매디가 四 그다음이 五 그 밑이 六하고 알아 버릇 해도 조타

○ 점자의 구조를 설명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아짜 뒤친 것이 야짜요
아야를 거꾸로 노흔 것이 어여짜요
오짜를 뒤친 것이 요짜요
오요를 거꾸로 노흔 것이 우유짜요
으짜를 뒤친 것이 이짜요

○ 점자를 배우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음.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 이것을 어대서 만저 보아도 얼른 알도록 만저 배호는 것이다. 한번에 몰르면 열뻔도 백번도 만저 본다. 쌍에다 못을 박어서 써노하 보아도 조코 방바닥에 바둑돌을 그대로 늘어노하 보아도 조타

○ 이러한 것을 직접 시각장애인에게 훈련시킨 내용도 보이는데, 이것은 이경재(李景在)에게 보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相善이가 남子인가 女子인가 어느째 失明인가
> 拜啓 이제 공부시킬 것을 보내니 지시한 대로 쏙 시키시되
> 제一공과는 몃칠 제二공과는 몃칠에 끋낫다는 것도 긔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인 '相善'이를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을 이경재에게 보낸 내용임. 따라서 이 자료는 훈맹정음과 함께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얼마나 세심하게 지도하였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임.

(마)-2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이 한글점자 초고는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임.

○ 이 '한글 점자' 초고는 훈맹정음을 활용하는 법을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친필원고인 한글점자 초고(5729)의 후속 원고임

○ 이 원고도 한글점자 초고(5729)와 마찬가지로 세로로 쓰이었지만, 글을 쓰는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 글은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의 수표 앞면과 뒷면에 쓴 메모로 추정됨

○ 한글점자 초고(5729)가 제1공과와 제2공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이 메모는 제3공과로부터 제7공과로 되어 있음

○ 제3공과는 ㄱ ㄴ ㄷ 까지, 그리고 제4공과는 ㄹ ㅁ ㅂ ㅅ ㅈ ㅊ 까지, 제5공과는 ㅋ ㅌ ㅍ ㅎ 까지, 제6공과는 받침을, 제7공과는 약자 아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글점자 초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심의유물 번호	차례	내용
5729	제1공과	점자 모양
	제2공과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5726	제3공과	ㄱ ㄴ ㄷ
	제4공과	ㄹ ㅁ ㅂ ㅅ ㅈ ㅊ
	제5공과	ㅋ ㅌ ㅍ ㅎ
	제6공과	받침
	제7공과	약자

○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일부만 보임)

> ㄱ 은 기억이라고 하지 말고 그 변이라고 한다. 4점이다.
> ㄴ 은 니은이라고 하지 말고 드 변이라고 하고 1점 4점이다.
> ㄷ 은 지긋이라고 하지 말고 느 변이라고 한다. 2점 4점이다.
> ㄹ 은 이을이라고 하지 말고 르 변이라고 한다. 제5점을 찍는 것이다.
> ㅁ 은 미음이라고 하지 말고 므 변이라고 한다. 1 5 점을 찍는다.
> ㅂ 은 비읍이라고 하지 말고 브 변이라고 한다. 4 5 점을 찍는다.
> ㄱ ㄴ ㄷ 은 5, 15, 45 점이라고 외인다.
> ㅅ 는 시옷이라고 하지 말고 스 변이라고 한다. 6점만을 찍는다.
> ㅈ 은 지읒이라고 하지 말고 즈 변이라고 한다.
> ㅊ 은 치읏이라고 하지 말고 츠 변이라고 한다.
> 이 ㅅ ㅈ ㅊ 석 줄은 6, 46, 56이라고 외운다.

(바) 한글점자 쓰는 법

○ '한글 뎜ㅅ자(鮮文點字) 쓰는 법(書例)'은 유인본임.

○ 훈맹정음 기호표의 아래에 있는 '된쇳, 군쇳, 외, 응 바침, 略字, 장음 小거듭, 大거듭, 련속표, 의문표, 감탄표, 괄호, 재셔표, 상동표, 일문표, 영문표, 구뎜, 막뎜, 알쇼표, 수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임.

○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 1. 네 가지
> 2. 보통 략자 아홉
> 3. 모든 표 열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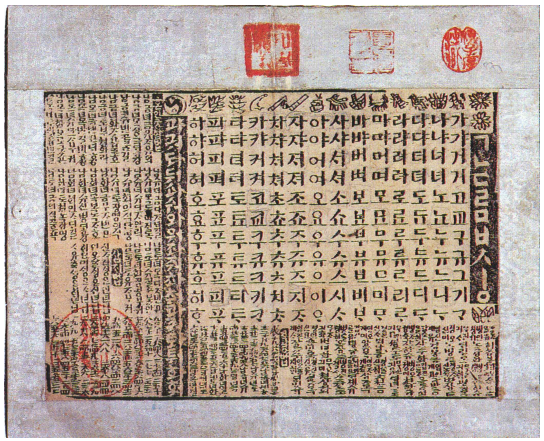
○ 이것을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음.

대분류	소분류	예	비고
네 가지	된쇳	쌀(米) 썩(餠) 꿀(蜜) 쑬 씨앗(種)	
	군쇳	물ㅅ갑(水代) 술ㅅ집(酒家) 글ㅅ자(文字) 벳집(稻稿)	
	외	뵈(布) 쇠(鐵) 되(升) 뒤(後) 귀(耳) 외양(牛舍)	'뒤, 귀'는 잘못된 예문
	응	콩(太) 총(銃) 방(房) 마당(場) 봉당(廚)	
보통략자 아홉	와	왕(王) 관(冠) 활(弓) 과자(菓子) 화상(畵像) 화초(花草)	
	워	원(元) 권리(權利) 월급(月給) 병원(病院) 원산(元山)	
	의	의원(醫員) 의사(意思) 국긔(國旗) 나븨(蝶) 이믜(旣) 의심(疑)	
	애	개(犬) 새(鳥) 어린애(幼兒) 우애(友愛) 구애(拘碍) 애졍(愛情)	
	가	감(柿) 강(江) 가지(枝) 갓 갈ㅅ대(蘆) 소가 간다(牛往)	
	을	버들(柳) 구슬(珠) 소를 타고(騎牛) 산을 넘어(登山)	
	에	베(租) 게(糠) 혜(舌) 케 산에 올나(登山) 옥을 캐(採玉)	
	은	은금(銀金) 큰소(大牛) 적은말(小馬) 구은고기(炙肉) 산은몹고(山高) 바다는 깊어(海深) 슈은(水銀)	
	예	예젼(昔) 예수(敎) 셰계(世界) 차례(次例) 전례(前例)	
모든 표 열셋	장음표(長音票)	눈-보라(雪風) 밤-나무(栗木)	
	쇼거듭(小疊)	넉ㄱ 튼ㄱ 천ㄱ 탕ㄱ	
	대거듭(大疊)	흔들ㅣㅣ 근드렁ㅣㅣㅣ 어름ㅣㅣ	
	의문표(疑問)	이것이 말이오? 사슴이오?	
	감탄표(感歎)	아! 아이고! 앗차! 허ㄱ!	
	재셔표(再書)	기인 뎨목을 또 쓸 때에 줄여 쓰끄기 위하야 대신 쓰는 표	
	상동표(上同)	웃줄과 갓치 쓸 수졀을 다 쓰는 대신에 쓰는 표	
	말쇼표(抹消)	지워버린 표	
	괄호(括弧)	한글(조션문)은 큰 글	
	련속표(連續)	뗴여야 할 데와 부치여야 할 데 씨우는 표 리-슌신(李舜臣)	
	일문표(日文)	일문-량쓸표	
	영문표(英文)	영문-량쓸표	
	수표와 수짜	1234567890 수표와 수짜 일 이 삼 사 오 륙 칠 팔 구 공 六十젼 一번디 경셩 一만三쳔二十三번	

(사) 훈맹정음

○ '훈맹정음'은 점자로 된 언문반절표로 인식됨. 즉 가로로 모음의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의 10자와 받침의 11행, 그리고 세로로 자음의 'ㄱㄴㄷㄹㅁㅂㅅㅈㅊㅋㅌㅍㅎ'의 13행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반 언문반절표는 다음과 같음(한 예만 제시함)



<언문반절표(홍윤표 소장)>

○ 자음 글자에서 'ㅇ'이 빠진 이유는 점자로 읽는 한글을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소리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추정됨.

○ 예컨대 '가'를 'ㄱ + ㅏ'로 인식하지 않고 'ㄱ + 아'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임.

○ 이것은 가능한 한 기호의 수를 줄여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문자를 인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리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자세는 시각장애인들이 청각적으로는 장애가 없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받침의 'ㅇ'은 필요하므로 이것을 '응' 받침이라고 하여 별도로 기호를 만들었음.

○ 이 기호체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보이고 있음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① 'ㄱ'에 '아' 하면 '가', 그리고 거기에 'ㄱ' 하면 '각' 하는 방식으로 읽히게 되어 있음.

② 가갸 등의 맨 끝에 있는 'ㄱ'은 글자는 하나이지만 그 소리는 '각 갹 걱 격 곡 콕 국 극 긱'임.

○ 그리고 이러한 자모표 아래의 '된쇶, 군쇶, 외, 응바침'과 약자, 장음, 소거듭, 대거듭, 련속표'를 합쳐 이를 조합하여 음절 글자를 만들면 오늘날 한글 음절글자 11,172자가 조합될 수 있어서 우리말과 한글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자의 배열방식이나 각 문자에 대당시킨 부호체계도 매우 과학적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모든 한글의 부호는 점으로만 되어 있음.

- 한글의 자형은 점과 선과 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현대의 한글에서는 점이 없음), 선과 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점으로만 구성한 것으로 보임.

② 점으로만 구성하였어도 그 숫자가 매우 한정적이어야 하는데, 그 숫자를 33의 개념을 도입시켜 조합의 한도를 제약시켰다고 할 수 있음

③ 즉 6 개의 점에서 1점을 선택하는 방식, 2점을 선택하는 방식, 3점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고 1점을 선택하는 방식도 그 1점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대립시키는 방식을 택하였음.

④ 그리하여 1점이 선택되는 경우에도 그 점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대립시켜 놓았음. 이렇게 하면 6개의 부호가 생성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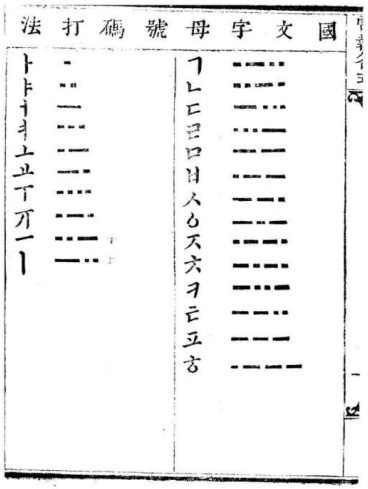
ㄱ. ●이 오른쪽 위에 위치	●이 왼쪽 위에 위치
○● / ○○ / ○○ 초성의 ㄱ	●○ / ○○ / ○○ 받침의 ㄱ
ㄴ. ●이 오른쪽 가운데에 위치	●이 왼쪽 가운데에 위치
○○ / ○● / ○○ 초성의 ㄹ	○○ / ●○ / ○○ 받침의 ㄹ
ㄴ. ●이 오른쪽 아래에 위치	●이 왼쪽 아래에 위치
○○ / ○○ / ○● 초성의 ㅅ	○○ / ○○ / ●○ 받침의 ㅅ

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의 모음들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마치 한글 모스 부호를 연상시킴.

- 대립 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음.

아	야
●○ / ●○ / ○●	○● / ○● / ●○
어	여
○● / ●○ / ●○	●○ / ○● / ○●
오	요
●○ / ○○ / ●●	○● / ○○ / ●●
우	유
●● / ○○ / ●○	●● / ○○ / ○●
으	이
○● / ●○ / ○●	●○ / ○● / ●○

- 위와 같은 관계는 문자를 생성시킬 때의 원칙에 따라 '반(反)'이라고 함. 즉 좌우로 뒤집어 놓는 것임.
- 이러한 방식은 모음 10자를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 오 우 으'만 암기하면 '야 여 요 유 이'를 자동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즉 단모음 5 글자를 암기할 경우, 이를 좌우로 뒤집어 놓으면 이 글자와 연관된 이중모음 5 글자가 된다는 원칙을 인식하게 만든 것으로 보임.
- 이것은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을 연상시킴, 한글 전신부호는 김학우가 1884년부터 1886년 사이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1888년에 국가 표준으로 법률화되어 『전보장정(電報章程)』이라는 전신 규약으로 공식화된 것임.



<전보장정의 국문자모호마타법>

- ㄱ을 기억하면 자동으로 ㄴ을, ㄷ을 기억하면 자동으로 ㄹ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즉 ㄱ 은 ·—·· 인데 비하여 ㄴ 은 이것을 좌우로 바꾸어 놓은 ·· ·—· 이며 ㄷ 은 —··· 인데 비하여 ㄹ 은 ··· ·— ㄴ임.
- 이러한 대립을 통하여 암기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킨 것이었음.

⑥ 이러한 대립방식은 받침의 부호에서도 마찬가지임.

- 1점인 경우

왼쪽 위		왼쪽 가운데		왼쪽 아래	
●○ ○○ ○○	받침 ㄱ	○○ ●○ ○○	받침 ㄹ	○○ ○○ ●○	받침 ㅅ

⑦ 3점을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약자에만 사용되고 있어서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보존한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그 환경도 매우 좋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훈맹정음이란 점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준 역사적 사건을 모든 국민들에게 크게 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업적이 나오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후대에 계속 전하기 위하여 유물들을 문화재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문자가 없는 국민들에게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만들어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국보 제70호),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업적들이 나오고 있는 현대에 시각장애인들에게 훈민정음과 다를 바 없는 훈맹정음을 좀 더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글을 과학화하여 모스 부호로 만든 '전보장정'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형편이므로 이 점자에 관한 유물들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훈맹정음에 대한 유물은 현재 송암박두성기념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두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 따라서 이 두 소장처의 유물들은 훈맹정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데 모두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 27건 91점을 조사하였음.

○ 그러나 이 중에서 유물번호 5701, 5703, 5714, 5726·5729, 5728, 5739, 5746만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분명하여 이들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를 인정함.

○ 위의 유물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유물들이어서 이들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번호	유물명	유물번호	내용
1	한글 점자 육필 원고	5701	한글 점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
2	한글 점자의 유래 초고본	5703	훈맹정음을 창안하기까지의 한글 점자에 대한 유래와 그 검토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5714	5703을 수정 보완한 것
	훈맹정음의 유래	5728	5714와 동일한 내용
3	한글 점자 초고	5726	훈맹정음을 활용하는 법
	한글 점자 초고	5729	5726의 후속원고
4	한글 점자 쓰는 법	5739	한글 점자의 구성을 설명한 것
5	훈맹정음	5746	한글 점자표

○ 이들은 1-5까지 번호 순서대로 훈맹정음이 창안되어서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여 주는 유물들임.
○ 따라서 이들 전체를 파악하여야 훈맹정음의 창안과 그 구조 및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이유들로 이 유물들은 문화재로 등록하여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

1) 개요

○ 박두성 선생과 한글점자 창안
-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평양에서 홀여사가 만든 4점형 평양점자를 배운 일부 학생들이 입학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동기가 시각장애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박두성 선생에게 6점형 한글점자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박두성 선생은 한글점자를 만들 결심을 하고 한글의 창제 과정 연구를 시작하여 1921년에 '3.2점식 점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음.
- '3.2점식 점자'를 보완하기 위해 1923년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언문청을 두었다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제자 8인과 '조선어점자 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한글점자연구를 착수한지 3년 4개월만인 1926년 8월에 완성하여, 훈민정음이 반포 480주년 해이면서 처음으로 축하 기념식을 올리는 '가갸날'인 11월 4일에 훈민정음과 발음이 비슷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맹정음'으로 발표하였음.
- 당시의 '훈맹정음' 창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인 문자 창제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2014년에 기증받은 것으로 40건 105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박두성 선생의 훈맹정음 관련 육필 원고본, 훈맹정음 일람표, 점자 편지, 점자 문서류, 조선맹인사업협회 규칙, 박두성 선생 및 가족사진 등으로 개인적인 자료까지 포함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한글점자」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박두성 선생이 1926년 훈맹정음을 만든 뒤 머리말, 목차에 이어 본문으로 한글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기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의 내용을 정리함으로 한글점자 뿐만아니라 수학, 음악, 외국어를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 외국점자 실태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나)「한글점자의 유래」초고본(박두성)

○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정리한 육필 초고본으로 조선 맹인과 점자, 제생원 맹아부, 한국어 브레일 연구의 표준, 3.2점식 점자, 조선문점자 연구회, 한글점자 고안들, 한글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모음수, 여러 안의 검토 순으로 기록됨. 마지막 장에 임시 입법의원 대의원 선거에서 점자 투표를 1946년 10월에 한 언급은 시각장애인의 선거 참여에 의미가 있음.

(다)「훈맹정음의 유래」초고본(박두성, 1949)

○ 박두성 선생은 1946년에는 '한글점자'로 표기했었으나 1949년에는 '훈맹정음'으로 표현하여 점자에 대한 명칭에 대해 고민이 보임으로 이번 훈맹정음과 관련한 문화재 명칭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네이밍 결정이 중요함.

(라)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훈맹정음의 유래」초고본의 일부로 목차와 15, 16쪽의 3장만 남아 있음. 한글박물관 소장 번호 5714「훈맹정음의 유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복됨.

(마)-1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한글점자에 관한 내용을 적으면서 어린아이는 점자판이 있어야 써보고 만져보고 해야 연습이 되며, 점자판, ㄱ,ㄴ,ㄷ 등 자모, 받침, 모음에 대한 설명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시대에 사용한 점자판과 점필 유물을 찾을 필요가 있음.

(마)-2『한글점자』초고(박두성)

○ 박두성 선생은 한글점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설명한 글로 지인이 상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적혀 있어 한글점자에 대한 통신교육과 더불어 회람하도록 추정됨.

(바) 한글점자 쓰는 법

○ 한글점자 쓰는 법을 낱장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된시옷, 군시옷, 복모음, 소거듭, 대거듭, 의문표, 감탄표, 줄여쓰기, 연속표 등을 정리한 것으로 한글점자를 문서를 통해 보급하는 것으로 추정됨.

(사) 훈맹정음

○ 박두성 선생이 1926년에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완성한 뒤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 장으로 한글점자 일람표를 정리하여 배포한 것으로 묵자와 점자 혼용으로 제작함.
○ 한글점자를 자음(초성을 왼쪽부분, 종성을 오른쪽부분)과 모음(윗쪽)을 구성하여 한글을 쉽게 배우기 위해 점자일람표를 만들었음.
○ 훈맹정음의 약자 구성과 약자 쓰기 법을 적용한 것은 읽기 효율성을 위한 제자원리로 창의성이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종이의 특성과 점자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보존조치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한글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건물의 환경이 우수하여 원형보존에 매우 적합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인 한글점자 훈맹정음의 창안에 대한 자부심, 창의성, 역사성이 후대에 활용가치가 높음.
○ 훈맹정음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반영하고, 6점형 점자를 이용해서 받침(종성)과 약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한글점자 개정에 있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원리와 정체성을 널리 활용할 가치가 있음.
○ 한글 이외의 또 다른 글자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훈맹정음 관련하여 박두성기념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점자 제작을 위한 기기로 단체 및 공적 유물들이었고,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보급이 사적 관련 유물이었음.

7) 등록가치의견

○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 된 27건 91점을 조사하였으나, 훈맹정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7건 14점의 유물에 대해 등록추진을 하였으면 함.

○ 훈민정음의 유래와 한글점자의 초래 등을 통해 훈민정음의 우수성, 역사성, 독창성을 보았음. 훈맹정음의 창제 및 반포가 10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가치와 제자원리가 높아 문화재 등록이 필요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하나, 한글점자를 포함한 명칭을 만들었으며 좋겠음. 예) 한글점자 훈맹정음, 사유: 훈맹정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이 훈민정음의 오타로 생각할 수 있음.

안건번호 근대 2020-10-04

4.「구 천도교 임실교당」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구 천도교 임실교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5.26.)를 거쳐 등록 예고한「구 천도교 임실교당」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천도교 임실교구장

(2) 대상문화재명 : 구 천도교 임실교당

○ 소 재 지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67(봉황로 105)

○ 소 유 자 : 천도교 임실교구(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713-7)

○ 수　　량 : 3동(본채, 바깥채, 문간채)

○ 면　　적 : 본채 106.7㎡, 바깥채 66.8㎡, 문간채 44㎡(건축물 대장)

○ 건립시기 : 1930년(본채), 1936년(바깥채, 문간채)

○ 구　　조 : 목구조/목조와(문간채와 바깥채는 골슬레이트)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7.19.) : 문화재 등록 신청(임실군→문화재청)

○ ('19.11.4.)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1차)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추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0.5.12., 5.22.)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조사 실시(2차)

○ ('20.5.26.) : 2020년 제4차 근대분과위원회 '원안가결'

(5) 등록예고 : '20.6.3. ~ 7.2.(30일간) '지적 측량결과 무단점유 부분 확인'

○ 자료 보완 : 토지 매입(임실군) 및 소유자(상속자 등) 문화재 등록 동의서 제출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차)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20.5.12.)

- 근대기 건축된 한옥형식 교당으로 생활공간과 종교공간이 상호 공존하면서 독특한 평면과 공간을 구성하였고 오랜기간 지역의 대표적 근대역사문화자원으로서 역할하였다는 시대적, 건축적, 종교적,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건물의 전체적 보존상태는 양호하지 못하지만 기본적 건축형식은 원형의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임실군은 군유화하고 원형복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공공 문화시설로 조성,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임.
- 이상과 같이 보존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공공문화시설로 활용계획이 제시되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20.5.22.)

- 문간채와 중간채 그리고 안채로 구성된 천도교 임실교당은 지역 건축으로는 드물게 전면도로에 면한 부분보다 길 후면으로 길게 부지가 형성되어 있음. 이는 1930년대 당시 이 도로가 지역의 중심가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줌.
- 임실교당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본채의 공간구성임. 본채는 가운데 꺽임부를 기준으로 좌우에 3칸 반씩 위치하며, 전면에는 툇마루가 형성되어 있음. 초기에는 꺽임부 동측 2칸은 마루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상부에는 상량문이 위치해 있음.
- 꺽임부 주변의 실배치와 본채의 양단 부에 각각 부속실이 위치한 것은 일반적인 주거의 공간구성과 다름. 이는 이 건물이 처음부터 종교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다만 1931년에 본채가 신축된 이후 중간채가 지어지면서 본채의 기능에서 변화가 생기가 공간 구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후에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
- 본채 양단부의 부속실은 본채의 규모로 보아 주방보다는 교당의 기능을 원하는 실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1931년에 본채가 신축되었을 당시에는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해야했으나, 1936년에 중간채가 건설되면서 본채에서 수행했던 부속 기능은 중간채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와는 해방 전에 사용된 왜식 개량기와가 부분적으로 현존하며, 때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시멘트 개량기와로 많은 부분이 수리되어, 현재는 신축 당시의 왜식 개량기와와 시멘트개량기와가 동시에 존재함.
- 천도교 임실교당은 동시대 서양에서 전래된 종교건축의 예를 참고하면서도, 민족종교의 가치를 담아내는 지역 종교건축은 매우 희소함. 특히 서양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발생한 여타 신흥종교와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 종교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천도교는 민족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당을 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전통건축만을 고집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음.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중앙교당과 봉황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음.
- 교세가 빠르게 성장했고, 어려운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당도 지역적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보임. 본 교당의 공간구성과 배치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종교 시설의 건축적 특징과 삶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건물의 보존은 지역의 민족종교의 활동을 증거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전문위원 ○○○('19.11.4.)

- 1930년대에 한옥 형식으로 지어진 근대 종교시설(천도교, 본채 묵서명 布德七十一年, 1930)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으나 지역에서 천도교의 역사와 독립운동 등에 대한 기억과 교육의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 건물의 전체 배치 및 공간 구성의 보존이 필요하고 일부 공간의 복원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19.11.4.)

- 신청대상 건축물은 임실의 일제강점기 민족종교로서 역할과 종교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건축적 측면에서 기존 근대시기 건립된 대다수에 한옥의 교회나 성당건축과 비교하면 전통한옥의 평면이나 배치, 기술, 형태와 같은 시대성의 반영과 희소성에 가치가 있어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건립 당시 건축적 특징(목부재의 공급이나 사용 등)과 이후 건축물의 보수 등,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와 고증 자료가 미흡함.
- 따라서 본 신청 건에 대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건축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고증과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19.11.4.)**

- 한옥을 이용한 천도교 교당 시설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러 채의 한옥을 기능별(집회, 숙박 등)로 사용한 것은 희소성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안채 및 바깥채, 대문간채의 정확한 기능 및 공간 활용 등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처음부터 한옥 교당으로 건립된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 한옥을 매입하여 교당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음.
- 교당측 및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추가적인 자료 보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도교 임실교당　(구) 천도교 임실교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 재 지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67(봉황로 105)

4. 소 유 자 : 천도교 임실교구 교구장 김창식 (주소 : 전북 임실군 선거리 713-7)

5. 시설물 개요

○ 구　　조 : 목구조/목조와(문간채와 바깥채는 골슬레이트)

○ 제작년도 : 1930년(본채), 1936년(바깥채, 문간채)

○ 수량 및 면적 : 3동, 본체 106㎡, 바깥채 66.8㎡, 문간채 44㎡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19.11.4.)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1873년 임실 지역에 동학이 전래된 이후 1905년 천도교로 개칭되었고, 1906년 임실 제1교구, 1908년 임실 제2교구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2개 교구를 합한 임실교구를 1916년 임실 성가리 현재 위치로 이전함.

○ 1919년 임실교구를 중심으로 임실지역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음.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교구장 다수는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고, 임실 출신 박준승은 민족대표 33인으로 활동함.

○ 현 천도교 임실교당은 1930년에 신축되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천도교 임실교당은 문간채, 바깥채, 본채의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동은 모두 'ㄱ'자 형태의 평면임. 문간채는 전면 도로인 봉황로에 면하여 남동향하여 배치되어 있고, 바깥채는 문간채에 비해 좀 더 남향하여 배치됨. 본채는 더욱 남향에 가깝게 배치되었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바깥채와 튼 ㅁ자 형태로 배치됨.

○ 문간채는 정면 3칸의 우진각 기와 지붕 건물로 중앙에 대문이 있고 우측에 방을 두었고, 좌측은 방과 부엌으로 구성함. 묵서명에 丙子年(1936)으로 기록됨.

○ 바깥채는 정면 5칸의 우진각 슬레이트 지붕 건물로 중문의 우측으로 수장 공간과 방 2칸을 배치하고 좌측은 방과 수장 공간으로 구성함. 丙子年으로 기록됨.

○ 본채는 정면 7칸의 우진각 기와 지붕 건물로 남향하고 있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방을 배치하고 좌측에서 'ㄱ'자로 꺾어 방과 부엌을 연속시켜 공간을 구성하고 대청과 방의 앞뒤로 툇간을 두었음. 묵서명에 布德 七十一年(1930)으로 기록됨.
○ 'ㄱ'자형 전통 한옥과 유사한 공간 구성이나, 이 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ㄱ'자 평면, 넓은 툇마루와 방의 구성 등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특징이 나타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본채의 부엌 부분이 입식 형태로 변형되면서 바닥, 벽체, 창호 등이 변형되었음. 그 외에도 바깥채와 문간채를 포함하여 벽체와 바닥 마감 등에서 변형이 확인됨.
○ 본채의 회첨 부분 추녀와 서가래, 개판, 평고대 등의 부후가 심각함. 마루널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고, 벽체 마감재 탈락 등의 노후화가 많은 부분에서 확인됨.
○ 2017년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본채 지붕부에 임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천도교의 교세가 위축된 이후 일반 주택 등으로 사용되면서 변형되었고, 이후 방치되어 많은 부분에서 노후화가 진행됨. 주변의 개발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천도교 측의 보존 의지가 중요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에서 동학 및 천도교, 3.1운동의 역사를 교육, 홍보하는 공간과 천도교 임실교구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활용계획의 전체적인 방향 및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도시재생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 등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계획의 구체성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중 종교시설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천도교의 건축물은 사례가 없고, 전라남도 기념물로서 천도교 장흥교당의 사례가 있음.
○ 등록문화재 중 한옥 형식의 근대 종교시설로서 성당 및 교회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30년대에 한옥 형식으로 지어진 근대 종교시설(천도교, 본채 묵서명 布德 七十一年, 1930)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으나 지역에서 천도교의 역사와 독립운동 등에 대한 기억과 교육의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음.
○ 건물의 전체 배치 및 공간 구성의 보존이 필요하고 일부 공간의 복원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천도교 임실교당'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현재 '천도교 임실교당'은 지난 1930년에서 1936년 사이에 임실읍 성가리 367에 건립되었으며 본채, 문간채,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음.
○ 임실읍 내 주도로로 임실역에서 호국로를 연결하는 봉황로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은 주거지와 임야 등이 분포되어 있음.
○ 1906년과 1908년 각각 임실 1교구와 2교구가 설립되었고, 1908년 두교구를 합하여 1916년 성가리 현재의 장소로 임실교구를 이전하였으며, 천도교 임실교구는 임실지역에서 일제강점기 멸왜기도[1] 운동 이후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고문 휴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한 교구였음.(9명중 3명이 임실군)
○ 종교인과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을 통해 근대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리강습소가 1908년대 시작하여, 1912년 전라도에 17개의 강습소가 설치되었으며, 임실군에 2개의 강습소가 설치됨.
○ 일제강점기 천도교 지방교구 및 천도교 청년회 지회의 설립 현황[2]에서 1939년 당시 임실에 1개 교구가 설치되었고, 창년회 지회가 설치되었음.
○ 1990년 이후 교세 축소로 현재 20여명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지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봉황로와 접하고 있음.
○ 본채 평면형태는 'ㄱ'자 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ㄴ자형 평면은 문간채로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튼'ㅁ'자 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바깥채는 봉황로에 접해서 상가와 대문으로 구성.
○ 본채 상량문에 "경오년(庚午年) 3월 25일 기둥을 세우고 동년 4월 17일 상량"한 기록을 통해 1930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바깥채와 문간채는 상량문에 "병자년(丙子년)에 상량"을 했다는 기록을 통해 1936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본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몸채로 구성, 동쪽(우측)으로부터 툇마루(퇴칸), 방, 대청(2칸), 큰방, 툇마루로 구성되어져 있고 큰방 앞으로 방 2칸과 부엌이 연결되어 있음. (각실에 구성과 용도는 교당으로 사용되어지면서 한칸반으로 구성된 부엌의 기능과 여기에 현재의 화장실 증축 등으로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초 살림집의 건립 목적이 아니면 부엌이 없이 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대청마루와 쪽마루가 연결되어 출입이 용이하고, 좌측 방 배면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채광 및 환기가 유리한 형태임.
○ 대청마루의 특징은 정면과 배면에 창호가 설치되어져 있으며. 당초 연등천장으로 노출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는 기성무늬합판으로 마감되어져 있음.
○ 본채 각 실에 외부 입면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측에 방은 머름하방위에 띠살무늬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방과 창방 사이에 소로가 설치되어 있음.

---

1)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했던 시기였다. 천도교인은 이를 극복하고 일제를 패망하게 하기 위해 가장 종교인다운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예산 출신으로 당시 제4대 교주였던 박인호를 중심으로 구파와 교인들은 왜적을 멸해달라는 기도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천도교단이 꾸준히 전개하던 독립운동의 맥을 잇는 과정이었다.(정을경, 「일제강점기 충남지역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충남대 박사논문, 2019.

2) 정을경, 「일제강점기 충남지역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충남대 박사논문, 2019, p97쪽 재인용.

○ 대청부분은 머름하방이 없이 하인방위에 정자살무늬의 3단으로 구성된 문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 위에 인방과 상인방, 그리고 상인방과 평방 사이에 유리창이 설치 되어있으며 대청의 배면은 블록을 쌓아 이질적이고, 문의 크기와 배열이 일정하지 않아 사용되어 오면서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좌측에 위치한 방의 입면은 우측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이지만 인방과 창방 사이에 소로는 없음.
○ 지붕은 우진각 지붕에 홑처마로 구성되어져 있고 본래 기와마감에서 처마부분을 목부재를 덧대어 골슬레이트로 씌워 내달아놓음.
○ 바깥채는 정면 5칸의 몸채에 2칸이 돌출되어 날개부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문간채와 본채를 연결하고 있음
○ 평면은 방과 광 1칸,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엌은 벽체를 판벽으로 구성하였는데 방을 확장하면서 부엌이 줄어듬.
○ 지붕은 우진각 지붕의 목구조에 현재는 골슬레이트지붕으로 씌워져 있음.
○ 문간채는 민도리집으로 도로에 면한 1칸능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가 안쪽에는 방과 부엌을 설치하고, 가운데 칸은 대문으로 옆 1칸은 문이 설치되어 있고 문간에서 출입이 이루어짐.
○ 지붕은 우진각 지붕의 목구조에 기와로 마감되어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회첨부분에 누수가 심해서 철제각관을 덧대어 칼라강판으로 덧 씌워진 상태이며, 그 외 서까래 부분도 누수로 인한 썩음 등 훼손이 확인됨.
○ 본채의 대청부분은 방의 용도로 변용되면서 벽체가 시멘트 블록으로 교체되고, 당초 천정에 목조틀 위에 무늬합판으로 마감되어있음.
○ 우물마루의 청판이 훼손되어 내려앉은 부분이 조사됨.
○ 토벽의 회벽마감 등이 훼손되어진 부분이 조사됨.
○ 북동쪽 모서리 기둥의 이탈과 좌굴현상이 확임됨.
○ 1930년 건립 당시 본채와 문간채, 바깥채 등의 도면 등이 남아있지 않고, 사용되어지면서 증·개축이나 보수에 대한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입면의 구성이 다양한 마감 형태 등을 볼때 원형에 대한 변형과 훼손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상건축물은 임실군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역사와 문화 공간이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여건이 양호함.
○ 건립이후 건축물의 보수이력과 고증 자료가 부족하여 원형과 변형의 정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구술 및 일부 옛 사진자료가 남아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 및 자료 확보를 통해 보존관리 여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건립이후 사용 연한의 경과 년수가 90여년으로, 건물의 내·외부와 주변 시설이 소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 원형에 대한 수리 등에 이력이 없고, 배치 형태 외에 가옥에 건립 당시에 형태나 부재의 사용 및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 동학 및 천도교 순례지, 임실지역 3.1운동의 역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청자료를 근거로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향후 보존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사항

○ 역사에 대한 학술적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신청대상 건축물의 보존과 수리 및 보수 등과 관련된 고증 자료의 발굴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논산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재 제42호 구 강경성결교회예배당은 한옥교회의 희소성과 남녀가 분리된 예배공간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장방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강경성결교회예배당의 경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거부사건 등으로 종교와 민족적 박해를 받았던 장소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정신에 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울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286호로 등록된 울진 행곡교회는 울진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 울진 지역의 초기 한옥형 교회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음.
○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천도교의 종교사적 의미와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위해 남겨질 가치가 있음.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신청대상 건축물은 임실의 일제강점기 민족종교로서 역할과 종교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건축적 측면에서 기존 근대시기 건립된 대다수에 한옥의 교회나 성당건축과 비교하면 전통한옥의 평면이나 배치, 기술, 형태와 같은 시대성의 반영과 희소성에 가치가 있어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건립 당시 건축적 특징(목부재의 공급이나 사용 등)과 이후 건축물의 보수 등,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와 고증 자료가 미흡함.
○ 따라서 본 신청 건에 대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건축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고증과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천도교당으로 사용을 전제로 '천도교 임실교당'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 문화재전문위원 ○○○(2019.11.4.)>

1) 개요

○ 동 시설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천도교' 예배당 시설로서, 한옥 건물의 안채와 바깥채, 문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량문 기록에 의하면 안채는 1930년, 나머지 바깥채와 문간채는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임.
○ 관련 기록 및 전언(傳言) 등에 따르면, 1873년 최시형으로부터 임실지역에 동학이 전래되었고 1905년 천도교로 명칭이 개칭된 이후, '천도교 임실교구'를 건립하여 포교활동을 이어 왔으며, 1930년에 현재의 위치에 교당(안채)을 최초 건립한 이후, 1936년 시설(바깥채와 문간채)을 증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천도교 임실교구는 1919년 3월12일 임실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교구장을 지냈던 김영원과 한영태 등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다고 함. 이밖에, 해방 후 한때 서울에 위치하였던 '천도교 중앙교회'가 임실교구로 옮겨지게 되어 잠시 동안 중앙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동 시설은 1996년까지 교당의 기능으로만 이용되었으나, 1987년경에 교당의 기능과 함께 교당 관리인이 살림집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당시 교세의 축소와 무관심 속에 한동안 방치되어 현재 노후화 및 퇴락화 등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교당 시설은 한옥 건물로 안채와 바깥채,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와 바깥채는 가운데 마당을 두고 소위, 튼ㅁ자형의 배치 형태를 보이고, 문간채는 바깥채 남쪽으로 대로변에 면해 위치하고 있음.

○ 각각의 채는 모두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는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들 중 안채는 교인들의 집회 장소, 바깥채는 숙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먼저, 안채의 경우에는 부엌○방1○방2○방3(본래 대청마루에서 방으로 개조)○상방 등이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지붕가구는 2고주5량의 우진각지붕으로 짜여져 있음. 각 실의 전면과 배면쪽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는데,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방과 대청 공간에서는 교리 강습의 장소, 툇마루에는 교리 연습의 공간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 관계 역시 확인 할 수 없음.

○ 특히, ㄱ자형의 평면구성을 통해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다만, 이와 유사한 평면구성은 1908년 한옥교회로 건립된 '김제 금산교회(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창호는 전반적으로 띠살 창호를 설치하였으나, 방3의 경우에는 정자살 창호를 사용하고 상부에 한해 十자 형태의 창살로 구획한 것이 특징적인데, 이와 같은 창호 패턴이 천도교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또한, 방3의 창호 상부에는 인방을 설치하고 주심도리(납도리)와의 사이에는 회벽이 아닌 미서기 유리 창호를 설치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과거 대청마루로 사용될 당시 환기, 통풍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근대기 한옥에서 보여지는 시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바깥채는 교인들의 숙박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방1○방2○광○대문○방3○방4○부엌 등의 각 실이 ㄱ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판문이 달려 있는 것이 흔히, 고택에서 볼 수 있는 사랑채와 연결된 중문채의 모습을 취하고 있음.

○ 대문간채는 바깥채 남쪽으로 대로에 면해 위치하고 있으며,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상가와 방, 그리고 상가 뒤편으로 2칸의 방이 달려 있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안채 및 바깥채, 대문간채의 정확한 기능 및 공간 활용 등을 알 수 없어 처음부터 한옥 교당으로 건립된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 한옥을 매입하여 교당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음.

○ 다만, 각 채의 형태(ㄱ자형) 및 배치 양상 등으로 보아서는 임실지역의 일반적인 민가의 형태와는 다르며, 또한 안채의 상량 묵서를 '布德 七十一年' 즉, 천도교 연호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안채는 최초 천도교 교당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과거 기록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다만,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1987년경에 교당 관리인이 살림집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형(대청마루→방, 툇마루 철거 등)이 있었다고 함.

○ 1996년까지 교당의 기능으로 이용되었으나, 이후 교세의 축소와 무관심 속에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어 노후화 및 퇴락화 등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교당측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대적·지역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천도교 임실교구사를 알리는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적어 보이며, 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관할 지자체에서는 동학순례 및 향후, 임실읍 상성마을 문화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으로서 활용, 교육 및 역사현장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임실지역의 3·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동학 및 천도교와 관련된 역사 교육의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도교와 관련된 시설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되는 곳으로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시유형문화재 제36호)', '장흥 천도교당(전라남도기념물 제218호)', '우이동 봉황각(서울시유형문화재 제2호)' 등이 있으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한옥을 이용한 천도교 교당 시설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러 채의 한옥을 기능별(집회, 숙박 등)로 사용한 점과 안채의 상량 묵서를 천도교 연호('布德 七十一年')로 기록한 것 등은 희소성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및 건축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사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임실 천도교당」

안건번호 근대 2020-10-05

5.「구 충주역 급수탑」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구 충주역 급수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7.7.20.)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02.11.)를 실시하고,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20.2.25.)에서 '추가 현장조사 후 재검토'를 사유로 보류되어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구 충주역 급수탑

○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56ㅇ14

○ 소 유 자 : 충주시장

○ 수　　량 : 1기

○ 규　　모 : 높이 14.7m(지상 11.5m 지하 3.2m)

○ 건립시기 : 1928년 추정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7.7.20.) : 문화재 등록 신청(충주시→문화재청)

○ ('20.2.11.)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1차)

○ ('20.2.25.)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추가 현장조사 후 재검토)

○ ('20.11.17.)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현장조사 실시(2차)

라. 관계전문가 추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20.11.17.)

- 충주역 급수탑은 1928년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형 평면의 석조로 된 1911년의 연산역 급수탑, 1921년 학다리역, 방형 평면의 석조 급수탑인 연천역 급수탑에서 1930년대 후반 원형 평면의 콘크리트조로 된 완성형 급수탑을 이루는 영천역, 도계역과 같은 급수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급수탑으로 우리나라 콘크리트 타설 기술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 충주역 급수탑은 기 등록된 11개소의 급수탑들의 시대적 연결성을 보여준다는 측면과 현재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급수탑이고, 원래 충주역의 장소에서 충주역사와 함께 장소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2.11.)

- 1928년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역 급수탑은 급수탑만 남아 본래 철도역 구성요소로서의 일체성, 완전성이 훼손되었고 전체적으로 단순한 기법과 형식으로 건설되어 두드러진 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충주역 급수탑은 기 등록된 10개소의 급수탑들에 비해 등록 가치가 미흡하지만, 현재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고 과거 충주역의 대표적 흔적으로서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 보다는 시도등록문화재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20.2.11.)

- 충주역 콘크리트조 급수탑은 일제강점기 사철에서 운영한 급수탑으로는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음. 다만 급수탑 자체만의 가치로는 기존의 급수탑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충주시의 역사와 근현대기 위상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역사해석을 통해 구조물로서의 가치보다 교통사와 지역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등록문화재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로는 지역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문화재전문위원 ○○○('20.2.11.)**

- 충북선에는 유일하게 남은 급수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변에 기존의 충북선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그 형태나 구조, 재료 등에 있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큼의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하지만 충북선 급수탑으로서의 의미와 1920년대 후반 건축된, 비교적 소규모의 원통형 급수탑으로서의 특징 등은 보존하여 남길 필요가 있으며, 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활용 역시 가능하므로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 및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존 및 활용 시 내외부에 남아 있는 철물들을 반드시 함께 보존하며, 지하부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 미흡

○ 출석 11명 / 원안가결 4명, 부결 7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충주역 급수탑　　(구) 충주역 급수탑

2. 용　　도 : (현) 급수탑 (미사용)　　(원) 급수탑

3.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56○14

4. 소 유 자 : 충주시장

5. 시설물 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제작년도 : 1928년 추정 , 높이 14.7m(지상 11.5m 지하 3.2m)
○ 수량 및 면적 : 1기, 직경 4.06m
○ 층수(높이) : 14.7m (지상: 11.5m, 지하 3.2m)

6. 조사자 의견('20.2.11.)

<문화재위원 ○○○>

1) 개요

○ 충북선은 일제강점기 사설철도회사인 조선중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1921년 11월 1일 경부선 조치원으로부터 청주까지 최초 개통된 후 1928년 12월 15일 충주까지 확장, 개통되었으며, 1959년 1월 1일 봉양까지 확장, 개통됨으로서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역할.
○ 충주역은 1928년 충북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충북선이 복선화되고 시 외곽으로 이설되면서 1980년 3월 12일 현재의 위치로 이전.
○ 충주역이 1980년 현재 위치로 이전된 후 본래의 충주역 자리에는 당시 역사 건물과 급수탑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 본래의 충주역 광장 및 역사 일대는 버스회사 차고지로 변경되어 당시 충주역 건물(철근 콘크리트조 2층 규모, 1976년 준공)이 현재 버스회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중.
○ 충주시는 2016년 급수탑을 포함한 주변 2,485㎡를 봉방소공원으로 조성하고 급수탑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급수탑을 등록문화재로 신청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충주역 급수탑은 충주역이 영업을 시작한 1928년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 고증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디젤기관차 등장으로 증기기관차 운행이 중지된 1967년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 급수탑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원통형 구조물로 외부 직경 4.06m, 벽체 두께 0.3m, 지상부 높이 11.5m, 지하부 깊이 3.2m 이며 원통형 구조물 내부에 기계실을 설치하고 상부에 높이 3m 정도의 물탱크실을 설치.

○ 원통형 벽체 하단부에 상부가 아치 형태로 처리된 출입구가 1개소 형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펌프 기초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급배수 철제 배관 흔적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

○ 충주역 급수탑은 급수탑 도입 초기의 석조에서 석조+철근콘크리트조를 거쳐 1920년대 중반경부터 일반화되었던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 형식으로, 상부 물탱크와 하부 기계실이 구조적, 형태적으로 일체화되며 전체적으로 기능적이고 단순하게 구성된 사례.

○ 급수탑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연못, 하천 등 수원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철도 궤도 등 과거 충주역의 구성요소와 흔적 대부분이 사라져, 근대기 철도역으로서의 일체성, 완전성이 훼손된 상태.

○ 충주역 급수탑은 현재 충북선에 남아 있는 유일한 급수탑이자 본래 충주역의 상징적 흔적이자 충주 지역 근대기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라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 등을 내포.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급수탑의 철근콘크리트 원통형 구조물은 원형과 기본적 형식을 대부분 유지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지만, 내부 기계설비는 급배수 배관 흔적이 극히 일부만 남아 있고 급수를 위한 수원지는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충주시는 급수탑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소공원으로 조성한 후 급수탑을 공원의 대표적, 상징적 구성요소로서 보존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할 예정이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급수탑의 내부 진입은 금지된 채 외부 관람만 허용되며 소공원의 상징적 요소이자 구 충주역의 흔적이자 소공원의 대표적 조형물, 기념물로 역할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이와 같은 활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

○ 현재 급수탑은 연천역 급수탑(등록문화재 제45호), 추풍령역 급수탑(등록문화재 제47호) 등 10개소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태이고 등록문화재가 아닌 급수탑은 충주역 급수탑, 순천역 급수탑 등 10여개소가 현존.

○ 기 등록문화재 급수탑 10개소는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초기 2004, 2005년에 등록되었으며, 이들에 비해 충주역 급수탑은 건설형식이 단순하고 두드러진 특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1928년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역 급수탑은 급수탑만 남아 본래 철도역 구성요소로서의 일체성, 완전성이 훼손되었고 전체적으로 단순한 기법과 형식으로 건설되어 두드러진 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충주역 급수탑은 기 등록된 10개소의 급수탑들에 비해 등록 가치가 미흡하지만, 현재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고 과거 충주역의 대표적 흔적으로서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 보다는 시도등록문화재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시 명칭은 구 충주역 급수탑

<문화재위원 ○○○>

1) 개요

○ 충주역은 조선중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부설된 충북선에 설치된 사철의 기차역이다. 최초의 충북선은 1921년 조치원~청주 구간을 시작으로 개통되었으며, 1928년에 충북선이 충주까지 연장되면서 충주역이 보통역으로 신설되었고 이때 급수탑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당시 기관차는 증기를 이용해 움직였기에 급수탑과 증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급탄시설이 중요했다. 따라서,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기차역에는 급수탑과 급탄설비가 건설되었는데, 현존하는 급수탑은 증기기관차로 운영되던 철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1980년 3월 12일 충북선의 복선화와 함께 시외곽으로 충주역이 이전하였으며, 구역사는 삼화버스공사의 충주교통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충주역 급수탑은 영역을 달리하여 근린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 급수탑 부지는 2015년까지 고물상으로 사용되었으나, 충주시에서 매입된 후 공원이 조성되어 급수탑은 공원안에 위치해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진 충주역 급수탑은 사철의 급수탑으로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사철의 급수탑으로는 드물게 이른 시기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졌다. 원통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철의 급수탑과 유사하나 1930년대 후반이후 보편적으로 지어지는 국철의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과 달리 상부의 구조가 돌출되지 않고 상부가 하부와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외관은 신축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충주역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급수탑의 진정성이 일반에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다.

○ 상부와 내부에 급수탑으로 사용될 당시에 구조물 일부가 남아있다.

○ 지어진지 90년이 넘어 외벽에 중성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중성화의 가시적 표시중 하나는 표면의 박락화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근린공원에 위치해있고, 급수탑에 대한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 등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 단,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충주역 급수탑의 가치를 충주시의 근대화 과정과 연계시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급수탑이 위치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충주시에서는 증기기관차에 대한 이해와 급수탑의 용도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충주시의 계획은 충주시가 갖고 있는 역사도시의 정체성과 철도의 상관성을 충분히 살리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조선시대 감영이 위치했으며, 조선시대 조선통신사가 경로가 위치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이자 지역의 거점이었던 충주가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적 교통체제 속에 소외되어 도시가 쇠락하는 과정과 국철이 아닌 사철로서 충주역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을 충주역의 급수탑의 현 모습을 통해 현장감있게 교육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등록신청시 제출한 계획의 실현에는 무리가 없으나 급수탑의 존재와 인접한 옛 충주역 그리고 조선시대의 중원대로가 인접한 여건을 활용할 경우 좀 더 의미있는 근대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충주시가 고물상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구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정도로 급수탑에 대한 애정이 많고, 인근에 구 충주역지와 옛 충주역이 현존하고 있어, 충주시의 의지에 따라 현재의 계획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 근대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충주역 콘크리트조 급수탑은 일제강점기 사철에서 운영한 급수탑으로는 질적 수준이 매우 높다. 다만 급수탑 자체만의 가치로는 기존의 급수탑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충주시의 역사와 근현대기 위상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역사해석을 통해 구조물로서의 가치보다 교통사와 지역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등록문화재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로는 지역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급수탑 구조체 1식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충북선 충주역 급수탑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충주역 급수탑은 일제강점기 사철 중 하나인 조선철도회사가 1921년 개설한 충북선이 1928년 충주까지 연장되며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급수탑으로, 현재 충북선에 유일하게 남은 급수탑이다. 해방 이후에는 국유화되어 운영되었으나, 1967년 디젤기관차의 도입으로 급수탑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1980년에는 충북선 복선화와 함께 충주역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의 충주역은 버스회사의 사무소이자 종착점이 되었고, 이에 따라 급수역 주변 기존의 철로는 전부 철거되고 급수탑만 남았다. 이후 사유화되어 폐고물상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5년 충주시가 매입하여 현재는 급수탑과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도면상에서는 지하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원통형 급수탑으로, 대부분의 급수탑들이 상부가 하부보다 넓은 것에 비해 상부와 하부의 지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원통형이다. 상부와 하부는 살짝 돌출된 콘크리트띠로 구분되며, 지붕 위로 송수관의 일부로 보이는 철물 등이 남아 있다. 출입구는 아치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위로 장방형의 창문이 수직으로 2개씩 앞 뒤로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내부에도 송수관으로 사용된 철물들이 잘 남아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인 형태는 비교적 온전히 잘 남아 있으며, 특히 외부 상단부의 송수관 철물이 남아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내외부 모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급수탑 주변부로 옛 충북선 철로 관련 흔적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인근에 이전에 사용하던 충주역(현 버스회사 사무실)이 남아 있다. 급수탑은 충주시에서 공원과 함께 관리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공원의 일부로, 급수탑 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미비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충주시 소유로 활용계획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처럼 내부는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등록문화재 중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급수탑은 없으나, 1931년 설치된 남원역 급수탑과 형태 및 규모 상으로 유사함. 내외부에 송수관 등 철물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나 기존의 등록문화재에 비해 형태 이외에 재료와 구조 등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충북선에는 유일하게 남은 급수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변에 기존의 충북선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그 형태나 구조, 재료 등에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큼의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충북선 급수탑으로서의 의미와 1920년대 후반 건축된, 비교적 소규모의 원통형 급수탑으로서의 특징 등은 보존하여 남길 필요가 있으며, 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활용 역시 가능하므로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 및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보존 및 활용 시 내외부에 남아 있는 철물들을 반드시 함께 보존하며, 지하부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따라서, 충주역 급수탑은 시도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안건번호 근대 2020-10-06

6. 「대한간호 창간호, 속간 1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대한간호』 창간호, 속간 1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간호』 창간호, 속간 1호」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7.1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11.21.)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대한간호』 창간호*	1점	26×18.3cm	1948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30번길
『대한간호』 속간 1호	1점	26.1×18.9cm	1953년		

* 창간호의 등록 신청 명칭은 '『대한간호』 창간호'이나, 유물 실제 표지 명칭은 '『간호대한』 창간호'임.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18.7.12.) : 문화재 등록 신청(인천광역시→문화재청)

○ ('19.11.21.)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9.11.21.)

- '『간호조선』(『간호대한』) 창간호'는 1948년 전선간호협회 편집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전문 잡지이며, '『대한간호』 속간 1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선』(『간호대한』)을 이어 1953년 속간한 잡지로,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간호계의 활동과 당대의 현황을 살피는데 유용한 자료임.
- '『간호조선』(『간호대한』) 창간호'는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되며, 『대한간호』 속간 1호는 대한간호협회의 소장본이 있음. 이 중 '『간호조선』(『간호대한』) 창간호'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지난 6월 자문회의에서 연속간행물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세운 바 있어 원칙은 유지하되 사안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19.11.21.)

- 1948년 출판된 창간호, 1953년에 출판된 속간 1호는 조선간호협회(대한간호협회)의 공식 기관지 창간호와 제2호로서 간호계, 보건의료계, 여성계에서 기념비적인 출판물임. 창간호는 그동안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가 발견되었고 인쇄물이 희귀한 시기의 정부와 민간 간호, 보건의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인쇄물이라는 데에 가치가 있음. 속간 1호는 현재 대한간호협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1부가 더 있으나 추가 복본의 발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위기를 경험한 보건의료와 간호분야의 상황을 알 수 있어 가치가 있음.

○ ○○○○○ ○○○('19.11.21.)

- 1948년도 출판된 창간호는 동시기 출판된 잡지가 희소하고, 해방 이후 새롭게 의료관련단체가 재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간호단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속간 1호는 5년간 잡지가 발간되지 못하다가 1953년에 이어서 발간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기사, 회원소개, 국민의료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임. 이 중 창간호는 특수성과 역사성, 희소성을 고려해 볼 때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대한간호 창간호, 속간1호는 연속간행물로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등 연속간행물에 대한 원칙적 기준에 맞지 않음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한간호 창간호, 속간 1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30번길

3. 소 유 자 : ○○○

4. 조사자 의견('19.11.21.)

<문화재위원 ○○○>

1) 개요

○ 두 책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발행된 간호단체의 전문잡지임. 『간호조선』은 1948년 10월 25일에 전선간호협회 편집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전문 잡지의 창간호이고, 『대한간호』 (속간 1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선』(『간호대한』)을 이어 1953년 7월 1일에 속간한 잡지임.

○ 신청자는 원 소장자인 김정선의 친척이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함. 김정선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부속 산파간호원양성소 졸업하고, 미국 뉴욕 포리크리닉 간호연구과를 수료한 뒤 대구 동산기독병원 간호원장을 역임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간호조선』(창간호)

○ 『간호조선』(창간호)는 전선간호협회편집부(全鮮看護協會編輯部)가 1948년 10월 25일에 발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전문 잡지의 창간호임. 창간호의 잡지명은 『간호대한』, 『간호조선』으로 되어 있고, 편집인도 지면에 따라 전선간호협회, 조선간호협회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 잡지를 발행하기 2년 전인 1946년 11월 11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간호 단체의 명칭은 조선간호협회임. 이렇게 명칭이 다른 이유는 해방이후 외형적으로는 단체로서의 체재를 갖추었으나 내면적으로는 불완전한 사회상이 그 원인이었을 것임. 곧 창립이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조선"이나 "전선" 대신에 "대한"이라고 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명은 "조선"이 아닌 "대한"을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이미 편집된 본문부분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변경하여 『간호대한』이라는 제호(題號)로 발행한 것으로 보임.

<그림1> 『간호조선』의 표지와 제호, 판권지

○ 조선간호협회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장 홍옥순 등이 국내 간호학교 및 병원 등 관련 단체나 인물들을 망라하여 새롭고 광범위하게 만든 국내 간호단체임.

○ 수록내용은 홍옥순 회장의 머리말,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과 고문이던 헤렌 대위의 축사, 손경춘의 "조선모자(母子)보건실정", "전선간호협회창립총회록", "이사회 결의사항", "각도병원급환자의사간호부수(看護婦數)", "고등간호학교명칭급소재지", 김세재의 "간호부에 대한 현대적 인식", "조선간호협회위원", "조선의 역사에 나타난 행정기관상 보건"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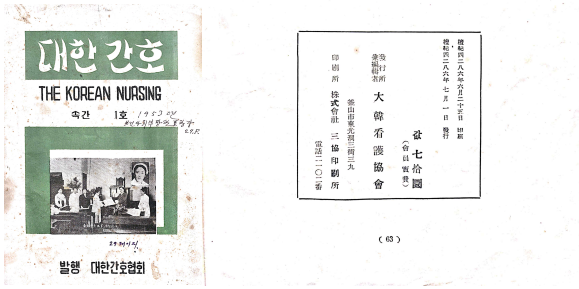
○ 『간호조선』 창간호는 원 소장자인 김정선(金正鮮)이 쓴 것으로 짐작되는 "1948.10월 창간호"라는 글이 윗부분에 적혀 있음. 표지의 창간호 발행일은 "1948년 11월 1일"임. 그렇다면 1948년 11월호를 창간호로 발행하였고, 이보다 앞선 10월에 회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나) 『대한간호』(속간 1호)

○ 『대한간호』 (속간 1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선』(『간호대한』)을 이어 1953년 7월 1일에 속간한 잡지임. 국문과 영문 표제는 『대한간호』와 『THE KOREAN NURSING』. 속간하게 된 사명에 대해 당시 대한간호협회장이었던 김온순(金溫順)은 "첫째, 일반간호원 자신의 수양을 증진시킬 것, 둘째, 간호사업과 일반사회와의 관련성을 밀접히 결합시킬 것, 셋째, 세계 국제간의 의료 및 간호 상식을 자양시키려는 목적에서 속간을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인사말인 "속간의 감격"에서 술회하고 있음.

○ 수록 내용은 1953년에 속간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속간의 감격", "대한간호원 여러분에게", "우리의 당면한 과제"에 이어 당시 긴요한 의료정보인 "척추관통총상의 간호", "육군간호장교의 활약상", "전쟁과 간호원" 등이 앞부분에 있음. 그 뒤에 "간호학교란"을 별도로 두어 학생들의 시와 수필, "소식란"에는 군과 간호에 관련된 글이 있음. 끝으로 간호관계 조문만을 발췌한 "국민의료법"과 "국민의료법시행규칙", "보건원조산원간호원자격시험규정", "신청서식서류작성상의 주의" 등임.

○ 표지 위아래에는 각각 "1953년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장 29p.", "29페이지"라고 적혀 있고, 29쪽에는 "제 7회 본협회총회에서 표창되어 순금메달을 받으신 우리의 모범 다섯 어른"에 원소장자인 "金正鮮"과 약력이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표창 기념으로 이 잡지를 잘 보관하였던 것으로 생각됨.



<그림2>『대한간호』(속간 1호) 표지와 판권지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책 모두 종이의 산화는 있으나 대체로 온전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개인 소장으로 보존관리가 요구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정부수립이후 우리나라 간호계의 활동과 당대의 현황을 살피는 데 유용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대한간호』 속간 1호는 대한간호협회도 소장본이 있으나 표지 사진에 사용된 동일한 인물들의 사진이 다름.

7) 등록가치의견

○ 『간호조선』(창간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전문 잡지의 창간호이고, 『대한간호』 (속간 1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간호조선』(『간호대한』)을 이어 1953년 7월 1일에 속간한 잡지임.

○ 『간호조선』(창간호)는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되며, 『대한간호』 (속간 1호)는 대한간호협회의 소장본이 있음.

○ 『간호조선』(창간호)은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런데 지난 6월의 자문회의에서는 연속간행물의 등록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동산) 분야별 등록 기준 마련 자문회의 (2020.6.26.)**
> ○ 신문・잡지류는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창간호 포함하여 완질 상태인 것을 등록 원칙으로 함(원본이지만 수량이 많은 경우 미등록)

○ 위의 기준은 원칙적인 기준임. 그런데 1946년 이후에 발행된 연속간행물은 근대문화재의 범주에 들지만 이 기준에는 대상이 되지 못함. 실제로 1946년 이후 1953년까지의 발행물들은 희귀한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원칙은 유지하되 사안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대상이 될 경우에는 명칭(제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OOOO OOO>

1) 현상

○ 표지와 내용 모두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간호조선 창간호와 대한간호 속간 1호는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혼란과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출판 자료의 생성이 부족하고, 그나마 전쟁과 피난 등으로 많은 기록물이 분실, 소멸된 1948년과 1953년에 각각 출판된 잡지임. 특히 간호대한 창간호는 그동안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최초로 실물이 발견되었으며, 속간 1호는 대한간호협회에서 1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발견된 실물.

○ 간호조선 창간호는 표지에 “간호대한 창간호 1948년 11월 1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맨 뒷장에는 “간호조선 창간호 1948년 10월 20일 인쇄 1948년 10월 25일 발행 편집인 전선(全鮮)간호협회편집부 발행인 전선간호협회 인쇄소 한일공인사”로 되어 있음. 이는 잡지가 인쇄되어 배포되기까지 약 열흘 사이에 제목이 “간호조선”에서 “간호대한”으로 바뀐 희귀한 경우임.

○ 간호조선 창간호는 해방 이후 미군청정령 제1호에 의해 설치된 정부행정기구인 보건후생부의 간호사업국장이었던 홍옥순이 주관하여 간호사업국 주최로 1946년 11월 총회를 개최한 조선간호협회에서 출판한 조선간호협회의 기관지 창간호임. 조선간호협회의 제3회 총회가 1948년 5월 20일 개최되었으므로, 3회의 총회를 개최할 정도로 기반이 잡힌 협회에서 기관지를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간호조선 창간호는 조선간호협회가 아닌 ‘전선간호협회’라는 명칭 사용의 증거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록임. 38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 군정에 의하여 신탁통치되다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간호부회가 아닌 ‘전선간호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에서, 남한 단독의 정부 수립에 대한 조선간호협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간호조선”이 인쇄되고 열흘 후에 “간호대한”으로 표지와 제목을 바꾼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발행인, 잡지 제목 등을 통하여 급박하게 변하고 있던 당시 정부 수립 및 정치 상황을 엿볼 수 있음.

○ 간호조선 창간호에는 조선간호협회장 홍옥순 뿐 아니라,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과 고문인 헤렌 대위, 간호사업위원장 손금성, 국립보건소 보건간호부장 손강춘, 보건간호과장 이강춘 등 정부에서 보건간호사업을 수행하던 고위 간호공직자,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남한의 간호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재건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고문으로 활동하던 미국 간호장교, 그리고 보건후생부장 이봉호, 보건후생부 차장 최제창 등 일반 고위 보건사업 공직자의 글이 다수 실려 있음. 이를 통하여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 출범 초기까지 정부 보건사업의 주요 인물과 상황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음. 그밖에도 성모병원장 박병래, 세브란스병원 최재봉, 서울 산파회장 송미향 등의 글이 있어 당시 민간 보건의료계의 인물과 상황 역시 파악할 수 있음.

○ 조선간호협회와 유사한 의료인단체의 창립을 살펴보면, 조선치과의사회는 1945년 창립되었으며, 조선의학협회는 1947년 5월 창립되어 1948년 5월 '조선의학협회보'를 창간하였으나,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보건의료계 인물의 글을 통하여 당시 보건의료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간호조선 창간호에 비하여, 의학계 인물의 의학적 내용에 집중하고 있음.

○ 1953년 7월 출판된 간호대한 속간 1호는 현재 대한간호협회에서 1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존처리되어 있음. 이번에 발견된 것과 대한간호협회에서 보유한 것과는 표지 사진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표지 사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시 인쇄와 출판 상황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간호대한 속간 1호는 한국전쟁 상황에서 출판된 희귀한 잡지로서 이번에 발견된 것이 두 번째 발견이며 향후 추가로 발견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피난지 부산에서 임시사무소를 정하고 계속 회무는 보았지만, 1951년과 1952년에 총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1953년 5월 전쟁 소강상황에서 250명의 대표가 모여 부산에서 총회를 하고 나이팅게일식 기념식을 갖는 등 협회의 재건과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잇던 상황임. 간호대한 속간 1호에도 간호계 내외의 다양한 인물의 글이 실렸을 뿐 아니라, '해방후 내한한 외국 간호부들' '척수관통 총창의 간호' '전쟁과 간호' 등의 글을 통하여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 간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3)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ㅇ1960" 웅진지식하우스(2009)

○ 신미자 외, "개정증보 간호의 역사" 대한간호협회(2013)

○ 이꽃메, '한국간호사와 대한간호' "대한간호" 44권 2호(2005)

4) 문화재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48년 출판된 간호조선 창간호와 1953년에 출판된 대한간호 속간 1호는 1946년 설립된 조선간호협회의 공식 기관지 창간호와 제2호로서 간호계, 보건의료계, 여성계에서 기념비적인 출판물임.

○ 특히 간호조선 창간호는 그동안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가 발견된 점, 해방 이후 보건의료계의 출판이 위축되고 남아있는 인쇄물이 희소한 시기의 정부와 민간 간호와 보건의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음. 또한 1953년에 출판된 대한간호 속간 1호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1부가 있으나 더 이상 복본이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이 역시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위기를 경험한 보건의료와 간호분야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있음.

○ 대한간호 속간 1호가 1953년에 나온데 비하여 조선의학협회회보는 1948년에 창간되었으나 1958년에야 속간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연속성 가지고 회지를 출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간호조선 창간호와 대한간호 속간 1호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여 해방 이후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기 간호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상황과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OOOOO OOO>

1) 현상

○『대한간호』 창간호 및 속간 1호는 세월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간호대한』 창간호와『대한간호』 속간 1호 총 2권의 연속간행물임.

○ 발행시기 및 특징: 각각 판본란이 있어 인쇄 및 발행일, 발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간호대한』 창간호는 판본란에 1948년 10월 20일 인쇄, 1948년 10월 25일 발행으로, 편집은 전선간호협회편집부(全鮮看護協會編輯部)가, 발행은 전선간호협회(全鮮看護協會)임.『대한간호』 속간 1호는『간호대한』 창간호와는 달리 단기 4286년 6월 25일 인쇄, 7월 1일 발행으로 표기되어 있음. 아울러 속간 1호에는 회원실비 가격 70원이 기재되어 있음. 발행소 및 편집자명에는 대한간호협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부산시 동광동에서 인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간호대한』 창간호의 목차 및 내용

- 창간호 목차는 축사, 전선간호협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말을 비롯하여 각 회원들이 간호협회 문화적 발전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보자보건, 캡수여식, 순화병원 활동한 기록을 수록하였고, 이외에도 시 등 회원의 문예활동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잡지의 창간을 축하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창간축사는 보건후생부장, 보건후생부차장, 성모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 등 당시 의료계의 대표격인 인물들의 축사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대한간호』를 발행한 주체인 전선간호협회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간호협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창간호의 용어의 혼재

- 창간호의 표지와 목차의 잡지명이 상이함. 표지에는 '간호대한'이나, 목차는 '간호조선'으로 되어 있음. 단체명의 경우에도 편집인에는 '전선간호협회'로, 본문에는 '조선간호협회'로 기재하고 있음.

○『대한간호』 속간 1호의 내용

- 1948년『대한간호』의 발간 이후 약 5년간 잡지가 발간되지 못하다가 1953년에 이어서 발간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기사를 시작으로, 특집 기사와 회원 소개, 국민의료법 및 국민의료법시행규칙, 보건원조산원간호원자격시험규정 및 관련 서식 등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간호대한』 창간호(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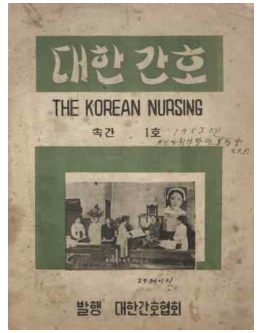


그림 2『대한간호』 속간 1호

○ 『간호대한』 창간호와 『대한간호』 속간 1호는 잡지명이 상이하여 동일 잡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잡지 표지 형식은 다르나 『대한간호』 속간 1호의 「속간의 감격」이라는 기사에서 1948년 제1호를 발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어, 1953년도에 발행된 『대한간호』는 『간호대한』에서 이어지는 잡지로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간호대한』 창간호는 제1호, 『대한간호』 속간 1호는 제2호임. 이후 잡지명은 『대한간호』로 정착됨.

○ 신청자가 소장한 『대한간호』 속간 1호는 대한간호협회도 소장하고 있음. 그러나 속간 1호의 표지 형태가 상이함. 표지 사진 속에 추가로 들어 있는 인물 사진의 위치와 트리밍의 형태가 다름. 인물은 동일함.

그림 3 대한간호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대한간호』 속간 1호 표지 사진

그림 4 신청자가 소장하고 있는 『대한간호』 속간 1호 표지 사진

○ 전선간호협회와 조선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의 관계

- 『간호대한』 창간호의 판권란을 살펴보면 편집인이 전선간호협회로 되어 있으나, 동일 호에 수록되어 있는 협회의 창립총회록에는 조선간호협회로 표기되어 있음. 창립총회록에 따르면, 협회는 1946년 11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1946년 11월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공식 협회명은 전선간호협회가 아니라 조선간호협회이고,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협회 발족식과 행사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조선간호협회는 면허를 받은 간호부와 산파로 조직되었고, 서울시내의 종합병원 대표 100여 명과 각 도 대표 50여 명 등 200여 명이 참가하여 서울명동성당 강당에서 결성식을 거행하였음. 그리고 창간호에는 조선간호협회위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장명이 홍옥순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선간호협회'는 '조선간호협회'의 오기임.
- 이후 『대한간호』 속간 1호에는 발행인이 대한간호협회로 표기되어 있음. 어느 시점부터 협회명이 조선간호협회에서 대한간호협회로 변경되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1949년 6월 한국이 국제간호협회에 정식 가입한 시점의 협회명이 대한간호협회로 확인되고, 그 이후 대한간호협회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1955년, 1957년, 1960년에 추가적으로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간행함.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한국의 간호협회의 시원을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조선간호부회의 설립부터 보고 있음. 조선간호부회는 1923년에 설립되었고, 선교계 간호원양성소 졸업생과 서양인 간호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임. 동 조직과 활동, 간호교육의 내용, 간호원의 활동, 간호지식에 관한 정보 등 조선간호부회의 활동을 『조선간호부회보』라는 계간지(연 4회 발간)를 발행하여 소개하였음.

○ 근대 한국의 간호조직과 활동, 지식 등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조선간호부회보』와 『대한간호』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조선간호부회는 한국인 간호원보다는 한국에서 사역했던 서양인 간호원들의 비중이 컸고, 기독교계 간호원양성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운영하고, 그들의 활동을 담았음. 따라서 근대 한국의 간호사업을 담당하던 간호원의 활동을 모두 담아낸 것은 아님. 그러나 동시에 일제강점기 관의 영향력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닌 사적 조직으로 동대문부인병원, 세브란스병원, 평양 연합기독병원 등 사립 병원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업과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음.

○ 이에 비해 해방 이후 의료분야의 제직업군의 교육과 자격을 재정비하는 과정 중에 창립한 조선간호협회(대한간호협회)는 해방 이후 한국의 간호사 및 산파 등 당시 간호업무에 참가하고 있던 사람들을 아우르고, 협회 발족 당시 각 병원 대표, 보건사회부 장관 등 한국 내의 간호업무에 관여하는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간호조직을 대표하는 성격을 띤 단체로 평가할 수 있음. 동 협회의 협회지의 성격을 가진 『간호대한』 창간호 및 『대한간호』 속간 1호 및 그 이후에 발간된 『대한간호』는 해방 이전의 『조선간호부회보』와는 간호단체의 회지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단체의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는 조선간호협회(대한간호협회)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장 홍옥순을 중심으로 한국의 간호학교 및 병원, 지방 보건후생부 정부와 각 간호부 단체 등을 총괄하여 새롭게 간호부 협회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여, 한국의 간호조직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간호부회보』와는 별도의 성격을 갖는 잡지로 볼 수 있음.

3) 문헌자료

○ 신문기사

- 「朝鮮看護婦會議」, 『가정신문』, 1946년 9월 17일
- 朝鮮看護婦協會結成」, 『대한독립신문』, 1946년 11월 13일
- 白衣의 天使들을 網羅ㅇ朝鮮看護協會 盛大한 發足」, 『자유신문』, 1946년 11월 14일
- 「國際看護協會에 한국도 정식 가입」, 『자유신문』, 1949년 6월 14일

○ 잡지 : 『대한간호』, 제3권(1955), 제4권(1957), 제5권(1960)

○ 단행본 : 대한적십자사, 『등불을 든 여인: 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공적서』, 1977년

4) 기타

○ 소장경위 : 소장자는 김정선의 친척에 해당하며 할머니 김정선에게 물려받은 것임. 김정선의 이력은 다음과 같음.

<김정선 이력>

1906년 출생
1927년 4월 서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부속 산파간호원양성소 졸업
1928년 3월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1935년 4월 태화기독교사회관 영아부 담당
1942년 7월 태화기독교사회관 영아부 경영
1945년 11월 서울시 보건소 간호주임
1948년 7월 대구 동산기독병원 간호원, 11월 대한간호협회 이사
1950년 2월 미국 뉴욕 포리크리닉 간호 연구과 수료
1952년 2월 미국 뉴욕 베브리컬 신학교 1년 수료, 대구 동산기독병원 간호원장

○ 1948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되면서 동시기 발간된『대한간호』의 발행에 관여하고, 소장하게 되었고, 소장자의 설명에 따르면 1950년 미국으로 유학갈 때 김정선 본인의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게 되면서 한국전쟁 중에도 소실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함.『간호대한』 창간호와『대한간호』 속간 1호에도 김정선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음.

○『간호대한』 창간호의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

- 1948년도 창간호는 동시기 출판된 잡지가 희소하고, 해방 이후 새롭게 의료관련 단체가 재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간호단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갖고 있음. 동시기 발행된 의학잡지의 경우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소실됨.
- 특히, 명칭의 변화라는 점에서 특수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창간호 표지에는『간호대한』이라고 적혀있으나, 목차에는 '간호조선 창간호'로 되어 있음.『간호대한』의 발행시기가 1948년 10월말이므로, 발간계획과 원고 수합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 1945년 8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사이에는 조선과 대한민국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시기에 해당함.『간호대한』의 발행인의 이름인 전선간호협회(조선간호협회)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이에 출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간호조선』으로 잡지명을 계획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간호대한』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후 발행된 잡지명(『대한간호』)과는 다르게 창간호만『간호대한』으로 되어 있음. 이후 발간된 잡지의 명칭과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인정됨. 단,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한 근대잡지 및 연속간행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희소성의 측면에서 창간호만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속간 1호도 대한간호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잡지와 표지가 상이함. 다른 판본 여부를 확인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창간호와 함께 문화재 등록을 고려할 수 있음.

5) 문화재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일제강점기의『조선간호부회보』(1925~1934년 발행)와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948년의『간호대한』부터 시작하는 잡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창간호의 경우,『간호대한』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지만, 이후 발간되는『대한간호』와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대한간호』로 명명할 필요가 있음. 단, 보고서 작성 시에는 원래 잡지명으로 각각 기재하였음.

○『대한간호』의 상당수를 소장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도 창간호는 소장하고 있지 않음.

○ 특수성과 역사성, 희소성을 고려해 볼 때 창간호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속간 1호의 경우 다른 판본이 존재하므로, 또 다른 판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판본을 확인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근대잡지 및 연속간행물의 경우 완질본을 대상으로 하고, 희소성이 있는 점이 평가대상이 되므로, 1960년까지 발행된 제5권까지의 희소성 여부를 확인하여 창간호와 같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복각 및 영인본의 형태로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해방 이후의 한국의 간호계의 활동과 현황을 조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음. 현재 의료계 분야에서 해방 직후에 관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임.

안건번호 근대 2020-10-07

7.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상변경 신청사항 및 추진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0호「서울 한국은행 본관」정초석 글씨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관리방안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서울 한국은행 본관」정초석 글씨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마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관리방안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사항

(1) 신 청 인 : 한국은행총재

(2) 대상문화재 :「서울 한국은행 본관」(사적 제280호, '81.9.25. 지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3) 신청내용

○ 정초석에 대한 관리방안(3가지 방안)

연번	관리방안
1	○ 안내판 설치 ※ 정초석 하단부에 간단한 설명의 안내판 부착, 정초석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안내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2	○ 정초석 복개 ※ 정초석 글씨 부분을 석재로 덧씌움,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3	○ 정초석 철거 후 이전 ※ 글씨가 새겨진 정초석 전면부 절단 및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절단면 석재로 덧씌움,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4) 향후계획

○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20.11월~12월)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안건 심의 상정('21.1.26.)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2명 / 원안접수 12명

안건번호 근대 2020-10-08

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보고

가. 보고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영사관」보수정비를 위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남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장	**<구 목포 일본영사관 주변 가변차로 신호등 추가 설치 / 허가사항 변경>** **(1) 허가 받는 자 :** 전라남도 목포시장 **(2) 허가내용** ○대상위치 : 전남 목포시 중앙동 3가 13 등 일원 ○세부내용 - 당초 : 가로등 32개소 / 가변차로 신호등 4개소 설치 - 변경 : 가로등 32개소 / 가변차로 신호등 6개소 설치(2개소 추가) **(3) 허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4) 참고** ○당초 허가일 : '20.09.04.	허가	'20.11.06.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전북 익산	○○○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가축분뇨처리시설(분뇨저장탱크) 설치>** **(1) 허가 받는 자 : ○○○** **(2) 허가내용** ○ 대상위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길 17 (화산리 83-2, 83-3) ○ 세부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분뇨저장탱크) 설치(터파기 후 지하에 설치) ○ 대지면적 : 659㎡ ○ 규격 : 252m×74m×41m(터파기 깊이 385~40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면 노출 높이 : 1.05m ☞ 저장탱크 상단 0.25m 및 핸드레일 0.8m **(3) 허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4) 참고**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20.11.19.)> - 금회 설치되는 구조물은 대부분 지하구조물로 지상에 핸드레일만 시각적으로 노출되므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허가	'20.11.23.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2명 / 원안접수 12명